

신지녹도전자 진본 천부경 풀이

구길수 | 『천부인과 천부경의 비밀』 저자

글 순 서

1. 머리말
2. 우리말 · 글의 속뜻 및 연관되는 우리 문화
3. 여러 전고비문(篆古碑文) 과 해독방법
4. 신지녹도전자 풀이
5. 최치원의 천부경 예찬시 81자 우리말 해독
6. 맺음말

1. 머리말

요즘 천부경 하면 뭐 하늘을 나는 요술이나, 또는 무슨 점술의 책이라도 되는 줄 아는 지 지금 서점에서 천부인에 관한 책들은 거의 점서(占書)나, 또는 정감록, 격암유록 등 도참(圖讖) 서적으로 분류돼 있다. 해독이 난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천부경은 하느님으로부터 전해진 민족경전이다. 하느님이 환숯(桓雄)¹⁾께 천부경을 내려주실 때는 아직 글자가 없었으므로 말로 전해주셨다(口傳之書). 환숯은 이 천부경을 잊지 않으려고 아침저녁으로 그 무리들과 함께 외웠고, 또 그 후손들에게도 대대손손 아기가 태어나 말을 배우면 그것부터 외우게 하였는데, 이렇게 자주 외우다 보니 이것이 우리의 숫자 '하나, 둘, 셋, ..., 열'의 體가 되었고, 그 후 이것이 用(단순 숫자)으로 활용되었는데, 지금은 體는 잊고 그저 숫자로만 아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때 환숯은 말이란 언젠가는 변질이나 윤색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의 신하 신지에게 말을 보관하는 방법을 개발하도록 명했고, 신지는 고심 고심하던 중 사냥을 나가게 되었는데, 산에서 사슴을 발견하고 활로 쏘았으나 화살이 빗나가 놓치게 되자, 그 사슴 발자국을 보고 사슴이 도망간 방향을 알게 되었다. ‘말의 보관도 이와 같이 하면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드디어 인류 최초의 글자를 만들었으니,²⁾ 그 글자가

1) ‘환웅’이라고 읽는데 필자는 숫컷 웅자를 ‘숫’으로 읽어 ‘환숫’이라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한단고기>와 <규원사화>에 있다. 神誌氏世掌主命之職專管出納獻替之務而只憑喉舌曾無文字設存之法一日出行狩獵忽驚起一隻牝鹿滿弓欲射施失其踵乃四處搜探至平沙處始見足印亂鑽向方自明府首沈吟旋復猛省曰記存之法惟如斯而已夫如斯而已夫是日罷獵即歸反復審思廣察萬象不多日悟得捌成文字是爲文字之始矣

바로 16자로 된 ‘신지녹도전자 진본 천부경’이다.

이 신지녹도전자 천부경 16자는 신의 글자였으므로 일반 백성에게서는 곧 잊혀져 무려 4천 년 간이나 숲속에 묻혀 있었는데, 신라 말 어문학의 대 성자 최치원이 이를 읽고 시첩으로 만들었는데(更復作帖) 바로 이것을 ‘최치원 81자 천부경’이라고 한다.³⁾

그러나 이 81자는 전고비에 있던 신지녹도전자 천부경 16자를 그대로 번역한 ‘진본 천부경 번역본’이 아니라, 그 ‘예찬문이며 설명서’라는 것이 신지녹도전자 천부경을 해독함으로써 밝혀냈다.⁴⁾

그런데도 일반적으로는 이 최치원 81자만을 천부경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치원은 당시 사대사상에 젖은 선비들이 가림토 등 우리 글자를 다 죽이고 없앴으므로 우리말을 한자로 적을 수 없어 할 수 없이 절름발이 글인 이두문(吏讀文) 형식으로 기묘하게 적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한자로 적혀 있으니 오직 한자풀이에만 매달림은 물론, 하느님, 환승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던 음양오행설이나 고급 기하학이나 난해한 수리로 풀어내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은 경전의 중요성을 높일지는 몰라도 원 뜻을 알 수가 없고, 원문보다 더욱 어려워지며, 내용면에서 역사를 왜곡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글쓴이는 먼저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가지 녹도전자문 자료들을 비교·분석·검토하여 원본 천부경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 당시에 쓰였던 우리말과 글 'ㄱ, ㄴ, ㄷ, …, ㅎ' 속에 들어있는' 우리말 속뜻'을 밝혔으며,⁵⁾ 당시의 우리 민족문화와 그림글자는 물론 그것이 나름대로 보장된 금문(金文), 갑골문(甲骨文)까지 해독하여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부경과 씨줄·날줄 같이 한 쌍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천부인을 알아야 했다. 천부인을 알지 못하면 천부경도 풀 수 없다.

그런 노력 끝에 결국 최치원 이후에 처음으로 녹도문 해독원리를 찾아내어 여러 가지 녹도전자들을 해독했다. 특히 우리가 평소에 늘 사용하는 우리 숫자 '하나, 둘, 셋... 열'이 진본 천부경이라는 것을 금문, 갑골문 등과 비교하여 10가지 증거로 밝혀내고 풀이하였으며, 한자로 쓰인 최치원의 81자 천부경도 우리말의 속뜻과 이두문 해석 형식으로 해독하고, 그것은 진본 천부경이 아니라 위 신지녹도문 예찬문임을 명확히 밝혀 함께 글쓴이 카페에 공개해놓았다.⁶⁾ 여기서는 그것을 요약해서 소개한다.

3) 전래과정에 대해서는 이맥의 <태백일사> 소도경전본훈편에 나와 있다. 그리고 <환단고기>나 <규원사화> 등에는 '16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 만 뒤에서 자세히 증명한다.

4) 갱부작첩(更復作帖)이라는 말 자체에도 번역이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다.

5) 이미 역사 이래 처음으로 우리말의 속뜻을 발견하고, 줄져 <천부인과 천부경의 비밀>에 담아 시중에 내놓았다.

2. 우리말 · 글의 속뜻 및 연관되는 우리 문화

1) 우리말과 글에 담긴 뜻

우리가 잘 알듯이, 앞서 말한 ‘환족’의 인구가 차츰 늘어나자 하느님의 무리아들 환숯(桓雄)님은 마치 짐승과 같은 곰네족(熊族)과 호랑이족(虎族)이 사는 고조선 유적지를 발견하고, 여기에 새 나라를 세우고자 하느님께 청한다. 이에 하느님은 쾌히 승낙하시며, 하늘과 땅과 사람의 표상하는 원방각(圓方角, ○□△) 보물 세 개를 내려주신다.

이 보물 세 개는 '동경', '청동 작두칼'⁷⁾, '청동 삼지창'인데, 이것은 그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중요한 것으로, 천지인을 상징하는 그 물건의 모양 ○□△이 바로 우리말의 어근과 원시한글 가림토는 물론, 현재 한글의 모태가 된다.

천부인으로 만든 우리 글자는 처음 신지가 처음 만든 '신지신획(神誌神劃)'이 있고, 이는 3세 단군 가락 때 삼시랑 을보룩에 의해 가림토가 된다. 이것이 더 발전되어 일본 신대문자나, 인도 구자라트 지방의 브라미 문자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세종이 복원하여(字倣古篆) 훈민정음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한글의 ㄱ, ㄴ, ㄷ, …, ㅎ 속에는 天地人의 뜻이 들어있고, 한자나 영어 등 다른 글자와는 그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 즉, 한자에는 'ㅇ' 같은 글자가 없고, 영어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ㅎ 등이 없으며, 다른 나라 글자에도 한글과 닮은 글자는 없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난해하고 신비한 것이 있으니, 한자처럼 사물의 모형만을 본떠 만든 글자는 많이 있는데, 우리 글자는 그 소리까지 본떠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글자와 말 하나하나에는 고유한 뜻은 물론이고 유사한 모양과 소리가 유사한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게 가능했을까?

이런 분야는 어문학자들이 거의 연구를 해놓지 않았고, 건방진 소리 같지만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도 조상들이 만든 옛글자의 의미를 충분히 알지는 못했던 것 같다.

누구나 한 번 우리말과 글자를 생각해보면 느낄 수 있다. 즉, 하늘 천부인 ㅇ의 첫 발음 '아'나, ㅇ에서 나온 ㅎ 등으로 발음되는 말은 그 입 모양이나 그 발음이 하늘처럼

6) 책은 현재 절판되어 좀 더 보강하여 재판 준비 중이고, 진본천부경을 설명해놓은 필자의 카페는 '천부경과 천부인의 비밀'(<http://cafe.daum.net/chunbuinnet>)임.

7) 칼의 원조, 청동 작두칼은 네모졌지만 자주 같다 보면 작두칼 같이 된다,

원용무애하다. 그러나 땅 천부인 ㄱ과 여기에 바탕을 둔 ㄱ, ㄴ, ㄷ 등은 원용무애한 소리가 아니고 어쩐지 모가 서 있는 것 같으며, ㅅ으로 발음되는 말은 어쩐지 날카롭게 서 있는 듯하지 않은가?

우선 모양부터 간단히 설명한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줄지 <천부인과 천부경의 비밀>과 글쓴이 카페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1) 세 천부인에서 나온 글자들

① 하늘 천부인 ○에서 나온 ㅇㅎ(ㅇㅎ)

- 하늘 천부인 ○으로 만든 우리 글자 ‘ㅇ’은 우선 그 입부터 하늘과 같이 둥글게 벌리고 소리를 내는 것인데, 우선 첫소리 **아**는 '하늘'을 의미하고, 이 하늘은 언제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있었으므로 '원초'가 되며, 이 원초는 다시 '처음'이 되고, 처음은 '새 것'이 된다. 그리하여 밝달임금(檀君)의 도읍지 '아사달'은 '처음 땅, 새 땅'이 되며⁸⁾, 또 '아시빨래, 아시김매기' 등에서처럼 '처음'이란 뜻으로 쓰이고, 또 '새 것'은 '어린 것'으로 말이 진화하여 '아우', '앗아비>아재비' 등 '작은 것'도 된다.

- ㅎ은 이 ○에서 발달한 글자로 '하하, 호호' 등 웃음소리에 쓰이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글자이며, '하늘, 하느님, 해' 등에 쓰이고,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할 때의 '한'에 서는 '크다, 회다, 밝다' 등 무려 20여 가지의 뜻에 쓰인다.

또 이 ㅇ과 ㅎ(ㅇ, ㅎ은 생략)은 반드시 '하늘과 같이 원용 무애한 것'에만 쓸 수 있다. 즉 땅처럼 걸림이 있거나 사람처럼 서는 것에는 ㅇ이나 ㅎ으로 시작되는 말이 없다. (이하 생략)

② 땅 천부인 □으로 만든 ㄱㅋㄴㅌㄷㅂㅅㅈ

땅 천부인 □과 이것이 분해되어 만들어진 ㄱ, ㅋ, ㄴ, ㄷ, ㅌ, ㄹ, ㅂ, ㅅ으로 시작되는 말은 반드시 땅처럼 물질적이고 걸림이 있는 말에만 쓰일 뿐, 하늘과 같이 걸림이 없거나 원용무애한 데는 쓰이지 않으며, 또 '사람'에서처럼 '선다'는 뜻이 있는 말에도 쓰이지 않는다. ㄱ은 천부인과 같은 모양으로 ㄱ, ㅋ, ㄴ, ㄷ, ㅌ, ㄹ, ㅂ, ㅅ의 대표이긴 하나, 그 뜻은 '물보다 높은 땅'이 되어 '뫼(山)', '마당', '마루', '마나님', '마마' 등에 쓰인다. (이하 생략)

- ㄱ은 '가장자리'의 뜻이 있다, 세종 100년 후에 나온 한자사전 <훈몽자회(訓蒙字會)>에 '물건'이라는 物 자가 '갓 물'로 나와 있는데, 물건이란 '지표의 모든 것'이란 말이다. 그래서 '갓길, 가죽, 거죽, 겨집(女, 訓蒙字會참고), 갓인에> 가시네, 겨(왕겨 등)

8) 'ㅇ'은 '음달, 양달'할 때의 '땅'을 의미함

결' 등에 쓰인다. ㄱ 은 ㄱ의 격음이다.(이하 생략)

• ㄴ은 '누워있다'는 뜻이 있어 '누리(세상)'도 ㄴ으로 시작되고, 누운 별례로서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누에(蠶)'가 ㄴ으로 시작되며, '누이, 누나'도 그 성기가 사내와 달리 누워있으니 ㄴ으로 시작되고, '내(川)'도 누워있으며, 사람의 '눈(目)'도 가로누워있으니 '눈'이고, 하늘에서 오는 '눈(雪)'도 빗물처럼 흘러버리지 않고 누워있으니 '눈'이다. (이하 생략)

• ㄷ은 땅 천부인의 대표 격인 '口'보다도 더 강력한 땅'의 뜻이 있어 '들판, 둔덕, 등성이' 등이 있는가 하면, ㄷ은 '음(陰)'이라는 뜻으로도 쓰여 하늘의 음인 '땅', 해의 음인 '달(月)', 머리의 음인 '다리(脚)', 아들의 음인 '딸(女)' 등에 쓰여진다. (이하 생략)

* ㅌ 은 땅이긴 하지만 주로 '원시 산야를 불태운 땅'으로 '터(집터)' 등에 쓰이고, 이 불이 탈 때 툭툭 튀는 등 튀다보니 '토끼' 등에도 쓰여진다. (이하 생략)

• ㄹ 은 '흐른다.'는 뜻, 즉 '유동적'인 뜻이 있어 그렇지 않아도 딱딱한 우리말을 부드럽게 해주지만, ㄹ로 시작되는 말은 오직 '리을'뿐이고, 주로 다른 글자에 붙어 그 발음에 윤활유 역할만 한다. (이하 생략)

• ㅂ 은 금문에 많이 나오는 글자로 '빈 그릇에 빗물이 채워진 모습'이며, 세종도 역시 이 ㅂ을 써서 '빈 그릇'의 뜻을 가진 말에 사용했으나, 가림토에서는 'ㄷ을 세워놓은 글자'로 그 의미는 같다. 즉, ㅂ 이나 ㄷ 세워 놓은 글자는 빈 그릇이므로 주로 '받거나 받게 하는' 의미를 가진 말에 쓰인다. 즉, 받는 그릇으로 '보세기, 바루', '보조개(그 모양)' 등이 있는가 하면, '씨를 받는 그릇'라는 뜻인 '씨ㅂ'이 있는데, 이는 반드시 '씨를 받을 수 있는 성인 여음' 에나 써야 하며, 보통 여음은 'ㅂ지' 이다. 또 '(田)'은 '하늘의 비나 빛을 받아 싹을 키우는 장소'이며, '비(雨)'나 '빛(光)'은 받게 하는 것이고, '바람(風)'은 받게 하는 것이면서도 바람을 막는 '벽(壁)' 자가 바람 벽 자이니 능동과 수동에 같은 말로 썼다. (이하 생략)

* ㅍ은 ㅂ이 변한 것으로 주로 '푸르다'는 의미의 말에 쓰인다. 즉, '바다'의 옛말이 '파라'이고, 봄에 싹이 나면 '파릇파릇, 퍼릇퍼릇, 포릇포릇, 푸릇푸릇'하다고 하니, ㅍ, ㅆ, ㅊ, ㅌ 중 어느 모음을 써도 같은 말이 된다. 여기서 우리말의 모음은 자음과 달리 천부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세종이 정리한 것이니 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하 생략)

③ 사람 천부인 △으로 만든 ㅅㅈㅊ(△)

• 사람 천부인 △으로 만들어진 ㅅ으로 시작되는 말에는 반드시 '사람, 서다, 솟다' 등의 뜻이 있는데, 이런 말에 하늘의 뜻이나 땅의 뜻은 들어가지 않는다.(이하 생략)

• ㅈ은 이 ㅅ 위에 '一'이라는 이불을 덮어놓으면 '서는 것이 유보'되어 '잠자다', '죽다(길게 잠을 잠, 永眠)' 등 쓰인다.(이하 생략)

• ㅊ은 이 ㅈ 위에 다시 새싹인 점이 올라와 ㅊ이 되어 '차오르다(滿), 참(眞)'이

되고, 또 '날씨가 찬' 것에도 쓰이는데, 이는 날씨가 차지면 식구들이 원시 주택인 굴 속에 '가득 차'게 되고, '짐승을 친다'할 때의 '친다'는 말은 '우리 안에 짐승이 가득 차'게 되기 때문이다. 즉, '짐승을 친다'고 할 때의 짐승은 반드시 '우리가 있는 동물'이어야 하고, 개는 우리에게 가두어 기르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개를 친다는 말은 없다. (이하 생략)

따라서 글쓴이의 졸저에서는 자세히 밝혔지만 지금 20만 어휘를 담은 국어사전을 보면, 우리말에는 '눈(目)'과 '눈(雪)'처럼 음이 같으나 뜻이 다른 동음이의(同音異意)의 말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이는 말이 만들어질 당시 불과 20 여 개의 단어만 사용할 때는 같은 음에 같은 뜻의 말(同音同意語)이었을 것이므로 그 뿌리인 천부인으로 봐도 모두 뿌리가 같다.

결론은 지금 우리말과 글자는 모두 이 귀중한 천부인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수천 년 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오직 사대사상에 미쳐 한자 등 외래어만 쓰고 살아왔으니 당연히 우리의 뿌리를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그간 중국에게 그 드넓던 땅을 다 내주고 한반도로 쫓겨 왔는가 하면, 일제에게 먹혔다가 지금은 미국의 속국이 되어 영어가 아니면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한글은 형상과 뜻과 발음이 일치한다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사람 천부인 △에서 나온 ㅅ이 들어가는 말과 글자 한 가지만을 가지고 글자의 형상과 뜻과 발음이 일치하고, 또 이것으로 말과 글자가 동시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① 모양이 서 있고, 솟는 모양이며, 그 끝이 뾰족한 것과 관련된 말들

- * 서다, 세우다 (立) * 사람 * 사내(丁)⁹⁾ * 솟다 * 솟 : 남근(男根)
- * 솟대(山象雄常)¹⁰⁾ * 솟터(蘇塗¹¹⁾) * 서울¹²⁾ * 새벌(新羅) : 13)
- * 스승, 스님¹⁴⁾ (이하 생략)

② ㅅ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말과 글자

- * 사람 : 두 다리 특징 * 샷, 사타구니 * 손 : 손가락 사이

9) 원 의미는 '장정의 남근'을 말하므로 서 있는 것이다.

10) 생명의 핵심인 남근 상을 상징하는 서낭나무의 원조로 '솟터'를 말한다. (蘇塗의 신단수(神壇樹))

11) 솟대가 모셔진 성소.

12) 섯벌(徐羅伐) >서벌 >서벌 >서울

13) 새로 선 벌 (섯벌 >서라벌)

14) 학문 등이 서 있는 사람

* 서까래 : 人처럼 대들보에 걸친 것 * 쑥·삼(麻, 蓼) : 그 잎 모양
(이하 생략)

③ △ 과 人은 그 끝이 畺족하고 畺족한 것은 가늘고 좁다

* 술 : 소나무 * 술 : 부추 * 술기 : 옷술기 등은 가늘다
* (오)술길 : 좁고 가는 길 (이하 생략)

(3) 말과 글은 동시에 만들어졌다

위 人으로 된 ‘말’은 세종이 만든 말들이 아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쓰려면 반드시 人을 써야 한다. 이 역시 '세종 전에 이미 人을 써야만 말할 수 있는 人의 어군이 있었다.'는 증거이고, 이는 말과 글자가 동시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는 ㄱ, ㄴ, ㄷ, ..., ㅎ 모두 그렇다.

그렇다면 옛 글자는 '자연과 같은 모양'이고, 소리도 '자연과 같은 소리'이며, 그래서 훈민정음도 가림토와 같이 소리글이 된다. 또 이는 글쓴이가 '우리 한글은 ㄱ, ㄴ, ㄷ, ..., ㅎ 속에 뜻이 들어있는 뜻글인 동시에 그 어군에만 통하던 소리글'이라 주장했던 것과 일치한다.

①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 서문

“... 천지에 자연의 소리가 있는즉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자가 있다. 그러므로 옛 사람은 소리에 따라 글자를 만들어서 만물의 뜻과 통하게 했고 삼재의 도에 실리게 했으므로 후세에서 능히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¹⁵⁾

여기서 주의할 것은 훈민정음이 자연의 소리 따라 만든 소리글자(因聲制字)이고, 옛 글자의 형상을 모방하여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훈민정음을 만들 때 모방했다는 옛 글자는 자연과 같은 모양이고, 소리도 자연과 같은 소리글이며, 그래서 훈민정음이 소리글이 된다.

또 이는 글쓴이가 우리 한글의 ㄱ, ㄴ, ㄷ, ..., ㅎ 속에 뜻이 들어있음을 발견한 후, 우리 한글은 '뜻글'인 동시에 '그 어군에만 통하던 소리글'이라고 주장했던 말과 일치한다.

그러나 글쓴이가 우리말과 글자가 동시에 만들어졌다고 추리하자, 많은 사람들이 ‘말이 먼저 만들어졌고 나중에 그 말에 맞추어 글자가 만들어졌다’고 반론을 폈는

15)

. 所以古人因聲制字. 以通萬物之情. 以載三才之道. 而後世不能易也

데, 아래의 신지신획에 나오는 其義有管制之象이나 其形其聲을 보면 '말과 글자가 동시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② 신지 신획

<소도경전(蘇塗經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유기(留記)>에 이르되 ‘신획(神劃)이 일찍이 태백산의 푸른 바위의 벽에 있는데, 그 모양이 ‘ㄱ’과 같으니 세상 사람들이 이르기를 신지선인이 전한 바라‘하며, 혹자는 ‘이것이 글자 만듦의 시초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획은 직일(直一)과 곡이(曲二)의 형상이며, 그 뜻은 관리, 통제 하에 형상대로 지었고, 그 형상 그 소리 또한 자연의 뜻이 계산된 데서 나온 것이다.”¹⁶⁾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밑줄 친 마지막 부분이다. 즉, 直一과 曲二란 바로 'ㄱ, ㄴ, ㄷ,...'인데 이는 자연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이며, '그 뜻을 관리, 통제했고, 그 모양이나 소리는 물론이고 뜻까지 자연의 뜻이 계산된 데서 나왔다'는 말이니, 한글은 상형문자인 '뜻글인 동시에 소리글'이라는 것이다.

2) 우리는 환한 빛의 민족, 백의민족

지금으로부터 대략 9천 년 전 지금 바이칼호 부근에는 북방계 몽골리언 일족이 살았는데, 그들은 환한 빛을 숭상하여 '환한 부족', 즉 '환족(桓族)'이라 했으며, 그들은 신석기 문명이 끝나고 청동기 문명이 시작될 6천 년 무렵 남쪽으로 이동하였으니 바로 우리 민족이다.

사용하는 단어가 몇 개 되지 않던 당시의 원시말에서 하늘과 하늘에 있는 해, 햇빛이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조상들은 <조대기> 기록처럼 아침저녁으로 해에게 기도를 드렸다.

햇빛은 <그림1> 빛의 삼원색 그림처럼 희다. 이를 최치원의 말처럼 一析三極으로 나누면 삼원색이 되지만, 이는 또 無盡本이므로 會三歸一, 즉 셋을 다시 모으면 다시 흰색으로 돌아간다. 이처럼 진본 천부경 원리는 초현대과학으로도 증명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몇 안 되는 벼슬아치들이야 색 있는 옷을 입었으나, 백성들은 흰 빛을 숭상하는 백의민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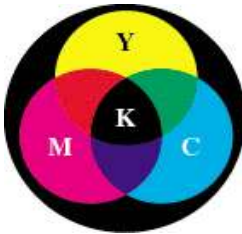
16) ... ㄱ世稱神誌仙人所傳也或者以是爲造字之始則其劃直一曲二之形其義有管制之象其形其聲又似出於計意然者也...'



<그림1> 빛의 삼원색

(1) **빛의 삼원색** : 반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한 햇빛의 색을 직접 보면 왼쪽과 같이 원색은 빨강(R), 초록(G), 파랑(B)이고, 이를 합하면 가운데처럼 다시 흰 색이 된다. 따라서 '한'을 쪼개면 천부인 '삼극'이 되지만, 합하면 다시 '한'이 된다. 이는 최치원 81자중 析三極 無盡本과 같다.

(2) **색의 삼원색** : 위 빛의 삼원색만 가지고는 천지만물의 색을 그릴 수 없으므로 빛이 일단 방사되어 다른 물체와 반사된 색의 삼원색은 <그림2>처럼 청색(Cyan), 자주(Magenta), 노랑(Yellow)을 말하며, 이들 삼원색을 여러 가지 비율로 혼합하면, 모든 색상을 만들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색상을 혼합해서는 이 삼원색을 만들 수 없다. 이들 삼원색을 1차색이라고 부르며, 빨강과 노랑을 혼합해서 만든 주황과, 노랑과 파랑을 혼합해서 만든 초록과, 파랑과 빨강을 혼합해서 만든 보라색은 2차색이라고 부른다.



<그림2> 색의 삼원색

이것은 최치원 81자에서 一始無始一, 一終無終一, 天一一 地一一 人一一의 한이고, 이것이 다시 天二三 地二三 人二三 이 되어 大三合六으로 生七八九하여, 한이 萬往萬來하듯 색의 삼원색으로 만물을 그릴 수 있음을 말해준다.

3) 우주를 삼극(三極)이론으로 인식

(1) 조상 대대로 썼던 삼태극

우리 조상들의 유적·유물에서 삼태극 문양은 엄청나게 많다.

<그림3>은 홍산문화 유적지에서 나온 삼태극 모양의 옥지환이며, 아래의 <그림4>, <그림5>는 쌍계사의 금강문과 신라 시대 장식 보검이다.



<그림3>홍산 문화 유적지에서 나온 삼태극 옥지환

840년(신라 문성왕 2년) 진감선가(眞監禪師)가 쌍계사를 지을 무렵만 해도 불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토속 신앙을 없애지 않으려고 밝달임금인 산신, 즉 산신각 등을 만들어놓았으며, 특히 이 쌍계사에는 환웅과 단군

을 예찬하는 난랑비가 있다. 여기 삼태극은 천지인의 의미가 담긴 천부인을 뜻하고, 삼



<그림4>쌍계사 금강문



<그림5>보물 635호인 신라시대 장식 보검

태극 위의 삼지창은 사람 천부인이며, 아래 것은 극이 반대로 도는 삼태극이다.

<그림5> 보물 제635호 신라 시대의 장식 보검¹⁷⁾에도 새겨져 있듯이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삼태극 무늬를 기왓장, 보검자루, 사찰의 계단 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곳에 사용했다.

현재의 태극기와 같은 음양 태극무늬는 이성계가 궁궐을 지을 때 마침 무학대사가 불사를 일으키던 회암사에 임시 종묘를 두고 있었으므로 그 돌계단에 새겨진 것 이외에 이씨 조선 이전을 넘어가는 것이 없으니, 이 음양 태극무늬는 오직 중국만을 숭상하던 이씨조선에서나 쓰던 중국 것이지 우리 것은 아니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2) 다리가 세 개 달린 청동기 솥

지금은 솥에 다리가 있을 이유가 없겠지만, 고대에는 특정한 집이 없이 자주 이사를 다니다 보니 솥을 걸만한 평평한 장소가 별로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제대로 세우기 위해 솥에는 다리가 세 개 붙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세우는 데는 그 다리가 한 개도 안 되고 두 개도 안 되며, 네 개는 뒤뚱거려서 안 되기 때문에 다리는 반드시 세 개가 있어야 세워진다. 그래서 '정립(鼎



<그림6>온 삼죽정

17) 미추왕릉지구 계림로 14호분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103쪽.

立)'이란 말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그림6>). 반면에 지나족 유물에 나오는 대부분의 술은 다리가 네 개다.

(3) 다리가 세 개 달린 삼족오



<그림7>삼족오

<그림7>의 삼족오는 고구려 고분에서 많이 나오므로 고구려의 혼이라고도 한다. 중국신화에 나타나는 태양 속에 사는 까마귀에 대한 전설은 후예(后羿)란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이를 고구려의 혼으로 삼았을 리는 없다.

삼족오의 새는 '솟는 것'으로 '해'의 상징물이고, '다리 세 개'는 뒤에 밝히는 신지복도문 삼지창에서와 같이 양 다리 가운데 남근이 붙은 것이며, 이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새 그림이므로 다리를 같게 한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 음악의 삼장원리, 삼박자인 우리 음악과 시조, 삼재부에 쓰이는 머리가 세 개인 독수리(三頭鷹)를 비롯하여, 하느님이나 임금에게 절을 할 때 3배를 하는 등 우리 겨레는 우주를 삼극이론으로 인식했던 증거는 수없이 많다.

(4) 우주는 삼극이론으로 존재, 음양이론은 불완전

음양론으로는 이 우주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했다 해도 100만분의 1초 안에 소멸한다. 그 이유는 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는 전자·양자·중성자(陰·陽·中性子)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 중성자가 음양 양극을 안정시켜주지 못하면 100만분의 1초 사이에 그 원자는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자로 된 우주도 동시에 사라진다.

따라서 기상대 청소부만 하더라도 100년 후에 어디서 일식, 월식이 일어날 것을 아는 데, 음양론으로는 내일아침 일기예보 하나 모른다. 만약 음양오행설이 그렇게 정확하고 우주의 진리를 안다면 기상대는 물론 인공위성을 쏘는 나사에서도 음양오행 '쟁이'들을 쓸 것이다. 따라서 이 음양오행설은 점쟁이들이 사기 치는 데나 쓰이는 쓸데없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상국으로 생각하던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니 지금도 음양오행설이라면 깜박 죽는 이가 너무나 많다.

이 우주는 天·地·人(陽·陰·中) 삼극으로 이루어졌고 천부경도 기본적으로 삼극이론을 바탕으로 된 것이므로 이를 음양오행설로 풀려면 자체모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천부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삼극이론으로 연구해야 한다.

지금 0 과 1, 즉 음양으로 만드는 반도체 칩,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컴퓨터는 불완전

한 음양론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앞으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자꾸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연, 우주순환원리는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가 근본이므로 앞으로 삼극(三極)으로 만드는 반도체 칩이 나올 것이고, 그럴 때 안정되어질 것이다.

4) 잘못 알려진 한자문화

(1) 우리글 금문에서 전해진 한자

중국인들은 갑골문(甲骨文)이 자기네 한자의 원조라고 알고 있고, 따라서 갑골문이 가장 오래된 글자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글자가 없던 당시에 그림을 그려 의사표시를 하였던 그림글자 금문(金文)이 먼저다.

그 후 신지가 사냥을 나갔다가 사슴의 발자국을 보고 힌트를 얻어 신진녹도전자를 만들었지만, 이는 천제를 지낼 때만 쓰던 신의 글자였지 인간이 쓰라는 글자는 아니었으므로 일반 백성들에게는 인기가 없어 금방 없어졌다.

따라서 신지가 다시 원시 한글인 가림토의 어미 신지신획(神誌神劃)을 만들었는데, 이는 특수층에서만 공부해야 알 수 있었으므로 일반인들은 그대로 그림글자인 금문을 썼고, 이 금문을 황제현원의 아들이라는 창힐(창힐의 존재설은 중국 기록에도 다수)이 지나인의 말과 상식에 맞추어 발달시킨 것이 甲骨文이다. 이 갑골문이 진시황 때 대전(大篆)·소전(小篆), 그 후에 예서(隸書)·해서(楷書) 등의 한자로 발전되어 우리에게는 삼국 초에나 들어왔던 것이다.

우리글 가림토는 신지신획을 보다 쉽게 만든 것인데, 금문이나 지금 한자도 그렇지만, 당시의 글자는 어떤 정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지녹도문이나 금문을 혼용하는 등 쓰는 사람마다 지방이나 부족마다 달랐으니, 그냥 그림 글자인 금문¹⁾보다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 결국 없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글자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사장시켜 버린 우리 선비들은 도리어 그 한자를 지나인들로부터 구걸해다가 우리말을 적자니 제대로 적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이두문이라는 절름발이 문법을 만들어 적었으므로, ‘뽕달임금’이 ‘檀君’이 되고, ‘앗선’이 ‘朝鮮’이 되었으며, 최치원의 81자도 마찬가지로 이두문 형식이다. 따라서 이것을 한자 뜻대로 해독해서는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2) 지금 한자로 된 사서(史書)로는 우리 역사를 알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는 한자는 고려 때 정착된 것이нде도 그 해석이 백인백색이니, 고

1) 후에 발전된 한문도 그림글자이긴 하다.

려나 삼국 이전의 죽간(竹刊)²⁾에 쓰인 원시한자는 그야말로 해독하는 자 마음대로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러한 한자로 쓰인 사서만 보고 우리 역사를 추정했다가는 정말 우리 역사가 왜곡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역사를 바로 알려면 반드시 유물 증거와 또 어느 유물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천부인으로 만든 우리말과 글자의 뿌리를 찾아 증명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금문과도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3) 미국은 물론 중국 등 외국 학자는 절대 해독할 수 없는 금문

현재 첫조선 개국지에서 출토되는 청동기 유물에 새겨진 금문이 무려 만여 점이나 되지만, 그것을 서양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학자들조차도 겨우 1천여 자밖에 해독하지 못했고, 그것도 이 필자가 보기에는 90% 이상이 잘못 되었다.

중국에서는 공자 등이 금문 해독을 조금 하였고, 또 <설문해자(說文解字)> 등의 해독 사전이 있으며, 근대 중국 금문의 최고권위자라는 낙빈기(駱賓基), 장박군(張璞君)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해독을 보면 글자 해독이 정말 잘못된 것은 물론이고 우리 역사까지 왜곡하고 있다. 그 그림글자를 쓴 사람들이 우리 겨레니 우리말, 우리 상식으로 읽어야만 제대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까지 그들을 금문해독의 권위자로 인정하는 데 있다.

4) 씨놀음(씨름)에 대한 바른 이해

우리 바른 역사는 물론 천부인과 천부경, 특히 진본천부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환스님 당시의 모든 생활상과 심지어 성 생활까지 철저히 알아야 하므로 아래 근거를 제시 한다.

(1) 씨놀음을 한다는 것발

<그림8>은 보스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첫조선³⁾ 유적지에서 출토된 청동유물인데, 위는 치우천왕의 원 모델이고, 아래 금문 글자는 장터에서 씨놀음(씨름)을 하겠다는 것발이다. 이 금문 해독은 글쓴이 카페에 자세히 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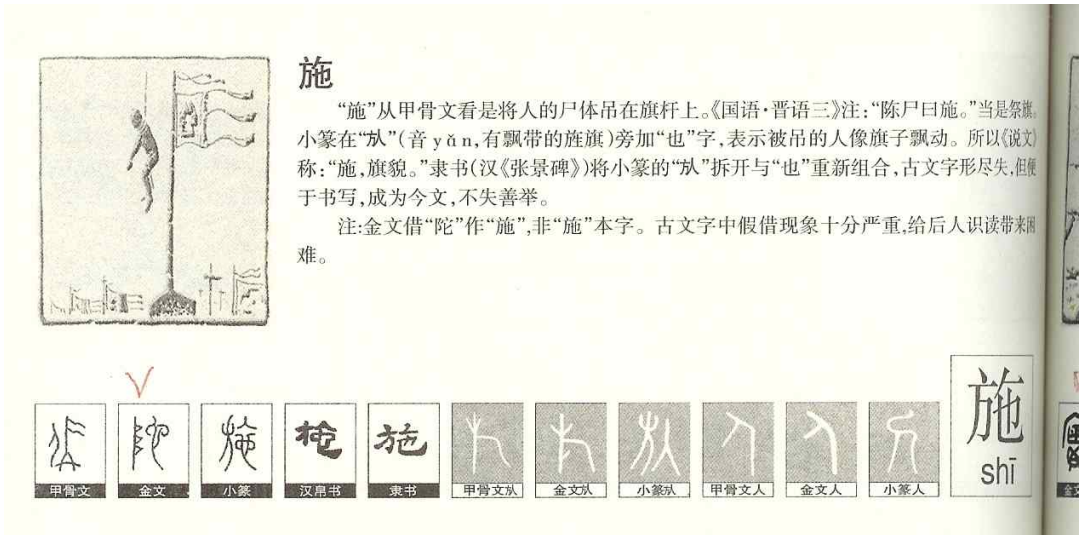
<그림8>씨놀음 것발이 새겨진 보스턴 박물관의 청동유물

2) 죽간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런 모습은 연속극 '주몽'에도 나온 바 있음.

3) 흔히 말하는 고조선이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이렇게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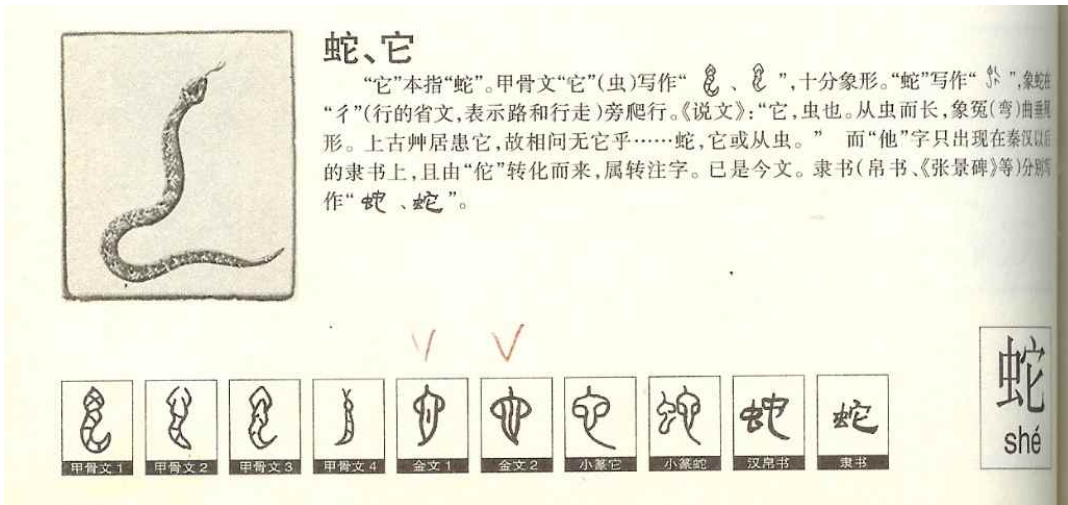
있다.

<그림9>은 무엇인가 베푼다는 '베푼 시(施)'자에 대해 설명한 <圖釋古漢字>의 내용이다.



<그림9> 施자 : <圖釋古漢字>, 能國榮著, 濟魯書社刊

원편 두 번째의 금문4)을 보면, 씨놀음을 한다는 깃발인데 그 그림 우측은 구멍 안으로 뭔가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그 구멍은 여음(女陰)이며, 그 원가는 바로 남근(男根)을 의미하는 '뱀'이다. '뱀'이 왜 '남근'인가는 다음의 <그림4>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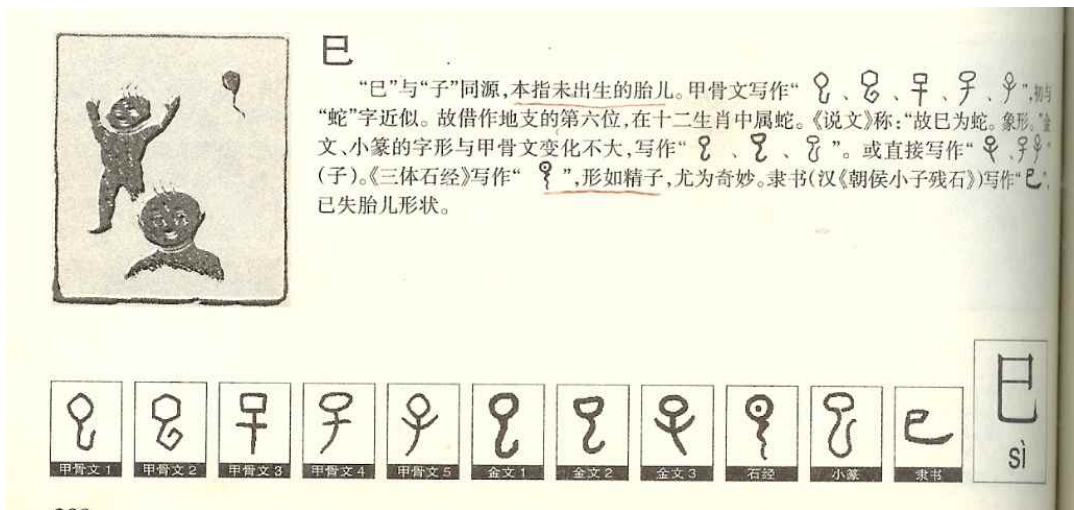
<그림10> 蛇자 : <圖釋古漢字>, 能國榮著, 濟魯書社刊

4) 뒤에 자세히 설명이 나오지만, 금문은 중국이 아닌 우리 조상의 글이다.

<그림10>에서도 우리 역사와 우리 상식을 모르는 중국인은 금문을 해독할 줄 모르니 중국인 해설은 보지 말고 금문만 보아야 한다.

金文 1, 2, 역시 구멍으로 뭔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뱀(蛇)'이라 했다. 그럼 과연 뱀은 무엇인가?

<그림11>을 보면 명확해진다. 이 巳의 금문은 뱀이 아니고 精子 같은 올챙이다. 따라서 뱀이란 바로 남근의 상징물이다, 아마 우리 선조들은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것을 보고 사람의 정액 속에도 올챙이 같은 것이 있으리라 추측한 것 같다.



<그림11> 巳자 : 〈圖釋古漢字〉, 能國榮著, 濟魯書社刊

(2) 씨놀음 승자에 대한 포상은 여자

<그림12>도 첫조선 유적지에서 출토된 보스턴 박물관의 청동유물에 새겨진 그림인데, 풀치마를 입은 왕과 신하가 있고, 그 옆에 씨름의 승자가 나신(裸身)으로 엉거주춤 서 있으며, 그 앞에 역시 나신의 옆드린 여인들이 있다. 즉, 당시 성행위는 후방위 교접이었으며, 성행위가 종족을 늘리는 성스럽고 위대한 행위였으므로 지금처럼 은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서도 당당히 했다는 증거가 된다.



<그림12>성행위 장면이 그려진 청동유물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씨놀음을 통하여 기형아나 무지렁이들의 씨를 전수시키지 못하게 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씨름에 이긴 자만이 씨를 뿌렸을 것이니, 그 덕분에 우리

가 건강한 건 아닌지? 하여간 이러한 5,000 여 년 전 선조들의 성생활을 두고 현재 우리는 이조 500년의 타성에 젖은 예의와 도덕이라는 잣대로 비도덕적이라고 폄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씨름 장사였던 환숫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 천부인과 진본 천부경인 하나, 둘, 셋, ..., 열을 받아가지고 앓선(첫조선) 유적지에 내려오셔서 그 우리들과 함께 진본 천부경인 하나, 둘, 셋, ..., 열을 주기도문처럼 아침저녁으로 외웠고, 또 그 후손들에게도 대대손손 아기가 태어나 말을 배우면 그것부터 외우게 하였는데, 이렇게 자주 외우다 보니 이것이 우리의 숫자 '하나, 둘, 셋, ..., 열'의 체(體)가 되었고, 그 후 이것이 용(用)으로 활용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숫자를 중요시해왔는데 지금은 그저 숫자로만 아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3) 남근의 상징인 뱀을 신성시했던 우리 조상



<그림13> 을미고 명문

'숫(雄)'이란 바로 '사내'의 남근을 말하고 그 남근의 상징물이 바로 '뱀'이다.

<그림13>는 첫조선 유적지에서 출토된 청동기 유물 을미고(乙未觚)에 새겨진 명문으로 남근을 여인 둘이서 손으로 받들고 있다.

<그림14>은 이것이 남근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 ㄹ 같은 뱀까지 그려놓았다. 즉, 지금 ㄹ 자는 전에는 뱀이 아니었고, ㄹ 자가 뱀이었던 것이 지금은 뒤바뀌었다는 것



<그림14>ㄹ자 뱀

은 원시 한자를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서 야구방망이 같은 것은 남근이고, 이것을 받드는 것은 여인 손이며, 그 아래 ㄹ 같은 것은 뱀이다. 이런 그림은 수도 없이 많다.

<그림15>도 보스턴 박물관에 있는 첫조선 유적지 발견 청동기 유물에 새겨진 명문인데, 그 해독은 우리 상식, 우리 말과 우리 상고사를 전혀 모르는 미국학자들은 물론 소위 중국의 금문학자들도 이것이 무슨 그림인지 전혀 몰라 지금까지 의문으로 남아있다.

이 그림은 뱀 두 마리가 서로 노려보는데, 뱀에게 세로 줄이 있어 뱀의 행동을 제한하고 있다. 즉, '뱀'은 '남근'을 상징하고, '제한된 뱀'이란 씨름 같이 어떤 '규약'이 있다는 말이며, 둘이 겨루듯 노려보는 것은 '씨름'을 하겠다는 것이며, 그 아래 야구방망이 같은 것은 '남근'이고, 그



<그림15> 보스턴 박물관의 첫조선 유물 사진

남근을 잡는 손은 '여인 손이며, 그 아래 반달 같은 것은 바로 '여음(女陰)'이다.
이 외 수많은 증거 사진들이 있지만 생각하고, 다음은 우리 뿌리말로 찾아본 남근의 상징물이 뱀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4) 아기가 울 때 겁주는 '어비'의 어원

지금도 애기들이 울고 때를 쓰면 “어-비(에비) 온다. 울음 똑 그쳐!”라고 한다. 여기서 ‘어비’는 ‘아비’이니 ‘엄한 아비가 오니 울음을 똑 그치라’는 말 같지만, “어비야 만지지 마”는 아비를 만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징그럽거나 무서운 것, 즉 사내 남근(=아비)의 상징물인 거대한 업구렁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이고, 결혼 제도가 없던 원시 사회에서 힘도 세고 일도 잘하는 사내가 그 집단에 들어오면 그 사내의 남근을 거대한 업구렁이에 비유 한 것인데 이 업이 우리말로 福이라는 근거는 또 있다. 즉, 예전에 살기가 곤궁하여 남의 집 문전에 아기를 버리면 이를 업동이 라고 하여 절대 버리지 못하고 들여다 기르게 했는데, 이 우리말 업이 福이 되는 것이다.

3. 여러 篆古碑文과 해독 방법

1) 여러 가지 전고비문 비교

최치원 81자 천부경의 내용은 <태백일사>본, <고운집>본, <계연수 서신본>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하고, 최치원이 보고 갱부작첩하여 81자를 만들었다는 ‘전고비(篆古碑)’ 또는 ‘전비문(篆碑文)⁵⁾ 등의 전자문, 즉 진본 천부경이라고 할 수 있는 신지전자문은 <그림16>와 같이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다.⁶⁾

- 5) “...녹도문으로써 그것을 썼다. 훗날 최고운이 篆古碑를 보고 갱부작첩하여 세상에 전하였다”(이맥의 <태백일사>소도경전본훈편)는 기록과 “篆碑文이 몹시 어렵고 읽기 힘들어서 고운이 그것을 번역하였다.”(<고운집>사적본)는 기록에서 가져온 말임.
- 6) 이찬구, ‘세 고전자본에 대한 비교 연구’ <천부경 연구>, 사단법인 한배달, 1994, 33~41쪽 참조
 - 구영변지 : 송호수와 김봉남의 책에 소개된 1942년 발간본에 소개된 ‘16자 신지전’
 - * 이찬구 논문에는 법수교 고비의 내용으로서 이유립의 <대배달민족사(1)>에 소개된 내용을 게재하고 있는데, 이는 책을 보아도 편집한 자욱이 뚜렷하므로 그대로 쓸 수가 없으며, KBS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보도한 ‘평양법수교비문’의 내용이 구영변지의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법수교 고비문으로 본다.
 - 신영변지 : 월남 세대들이 1971년 재발간본 맨 앞장에 실린 ‘신지필적’
 - 서법진결 : 김규진의 <서법진결(書法眞訣)>(1915년판)에 倉詰篆이라는 이름으로 게재된 11자.
 - 창성조적서비 : 중국 白水縣 史官村 倉聖廟의 碑에 새겨져 있는 28자(<환단지> 10호에서 전재). 창힐이 만든 鳥跡書라 알려짐



<그림16>여러 가지 전고비문

이들 내용을 비교해보면 대략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1) 서로 다른 경로과정에 있으나 결자의 꼴이 비슷하고, 같은 글자가 많다. 특히 영변지 신, 구와 법수교비의 글자는 순서만 다를 뿐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 16자가 창성조적서 28자 중에 다 들어 있다.

(3) 다른 것은 신지의 녹도문이라고 전해왔으나 서법전결과 창성조적서비에서는 창힐전으로 전하고 있다.

2) 신지녹도전자가 진본 천부경이라는 10가지 증거

필자는 신지전자를 해독해본 결과 이 중 신영변지에 실린 신지필적이 ‘신지전자 천부경 진본’이라고 보며, 원래 <그림17>처럼 세로로 쓰여 있었던 것을 누군가가 편의에 의해 가로쓰기로 옮긴 것으로 본다.

이 ‘신지녹도전자’가 진본 천부경이라는 것은 아래와 같은 10가지의 증거가 있다.

(1) 신지녹도전자 천부경은 16자이고 하나, 둘, 셋, ..., 열도 16자

진본 천부경이라 보는 신영변지(1971년 서울에서 재발간)에 게재된 신지전자의 글자

는 모두 16 자이며, 우리 숫자 '하나, 둘, 셋,..., 열'도 숫자의 뜻으로는 10 개이나 적는 글자 수는 16자이다. 그 외 평양 법수교 아래의 기천문과 안영태가 현대정치철학에 소개한 성예찬문 신지전자 역시 16자이지만 이는 '하나, 둘, 셋,..., 열'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그림 글씨들의 모양이 같다는 것은 우연이라기보다, 신지가 우리 진본 천부경을 적자니 지금 우리가 '하나, 둘, 셋,..., 열'을 적을 때와 마찬가지로 16자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당시에는 사용하는 단어가 제한적이었으므로 현재와 같이 똑 같은 글자라도 앞뒤의 글자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2) <영변지>에 제시하는 신지녹도전자의 글자가 실제로 중국 섬서성 백수현에 있다

북한 <영변지>에 신지녹도전자를 소개하면서 중국 섬서성 백수현(白水縣) 사관촌(史官村) 창성묘(創聖廟)에 있는 창성조적서비문은 보이지 않는다. 신지전자와 똑같은 글자가 포함된 창성조적서 비문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섬서고대서법유적종술(陝西古代書法遺跡綜述)>에 실려 있던 것을 1993년 발행된 <환단지(桓檀誌)> 제10호에 재인용하면서부터다. 따라서 북한 <영변지>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한 것을 보면 그들은 중국에 그런 글자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므로, 북한 <영변지> 글자와 창성 조적서 글자는 예로부터 각자 다른 길로 전래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림 17>
진본 천부경

(3) 一 二 三이 '하늘, 땅, 사람'이라면 四五六七八九十도 숫자 이전에 우리말이어야 한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여태껏 최치원 81자 중 一 二 三...十을 숫자로만 알고 그것을 숫자의 뜻대로만 풀려다보니 음양오행설이나 숫자판이 등장하게 되는데, 최치원이 一 二 三을 숫자가 아니라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고 했다면 四五六七八九十도 숫자가 아닌 다른 말뜻으로 풀어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그런 노력은 매우 부족한 것 같다.

최치원은 당시 신지녹도전자문에서 천부경이 '하나, 둘, 셋,..., 열'이란 것을 알았으나 이를 숫자로 보아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이라고 표현한다면 아무도 그 뜻을 알 수 없을 것임을 알고 우리말에 최대한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절름발이 이두문 형식으로라도 표현해놓고, 一 二 三을 예를 들어 四五六七八九十도 그렇게 해독하라는 힌트를 줬다. 그런데도 자꾸 한자, 숫자로 해석하려는 데서 착오가 생기고 어렵게 되는 것이다.

우리 선비들이 중국 것을 높이 보고 우리 것을 비꼬진 본 천부경 신지녹도문의 예찬문에 불과한 최치원 81자를, 그것도 절름바리 이두문 형식을 한자 뜻대로만 풀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천시하다 보니 가림토도 없어지고 금문조차 전혀 잘못 해독한 중국 사람을 따르며, 또 진본 천부경 신지녹도문의 예찬문에 불과한 최치원 81자를, 그것도 절름바리 이두문 형식을 한자 뜻대로만 풀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결국에는 풀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만 보아도 최치원 81자는 숫자풀이가 아닌 진본 천부경의 해설서였다는 증거가 된다.

(4) 창힐의 鳥跡書보다 鹿圖文이 먼저 만들어졌다

신지녹도 전자는 누가 봐도 鳥跡, 즉 새 발자국 같지 사슴 그림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는 창성조적서의 새 발자 그림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고, 신지 녹도문도 鳥跡書라 해야 맞다. 그런데도 굳이 신지의 글자를 사슴 그림, 즉 녹도문이라 하는 이유는 신지녹도문의 유래에서 보듯 신지가 사슴 발자국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신지가 처음 만든 글자를 배운 창힐이 이 글자를 가지고 자기 고향 중국에 돌아가 써놓으니 이 글씨가 마치 새 발자국 같으므로 새발자 글씨, 즉 鳥跡書라 했을 것이다. 반대로 만약 신지가 그 조적서를 본땀다면 그도 당연히 조적서라 했을 것이지 뜬금없이 모양과도 아무 연관이 되지 않는 鹿圖文 소리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글자의 수도 신지녹도전자를 포함하여 녹도문으로 쓴 법수교 아래 기천문이나 성예찬문서가 모두 16자인데 비해 창힐의 조적서는 28자이다. 원본을 본땀다면 줄일 이유가 없지만, 그것이 신의 글자임을 모르는 창힐은 자기나라 사정에 맞게 12자를 만들어 보탬을 수 있다.

이처럼 같은 글자가 녹도문, 조적서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것과 그 글자수로 미루어보아도 창힐이 신에게서 글자 만드는 법을 배웠다는 근거가 되며, 신지가 먼저 하느님 천부경인 口傳之書를 그대로 적었다는 말이 되므로, **신지녹도문 천부경이 진본 천부경**이라는 증거가 된다.

(5) 한 글자에는 한 의미만 있고, 금문이나 우리 뿌리 말과 연결된다.

지금 글쓴이는 신지녹도문, 금문 등을 해독하여 위 신지녹도전자 천부경을 풀이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글쓴이의 주장이라 오역 또는 편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여러 신지녹도문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같은 글자가 많고, 특히 현재 중국의 국보 창성 조적서 비문의 글자도 해독했는데, 글쓴이가 만약 그 신지전자 천부경 해독을 잘못하였다면 여러 곳에 쓰인 같은 글자를 같은

의미로 읽어서 전체적인 문맥이 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글쓴이의 해독 방법으로 약간씩 차이가 나는 여러 신지녹도문을 다 읽을 수 있었으며, 뒤에서 보듯이 이들 각 글자마다 금문과 우리 뿌리 말, 우리 풍속 등으로 이를 뒷받침해준다.¹⁾

이상 5가지 증거는 글 전체 공통으로 해당되고, 아래 5가지 증거는 신지녹도전자 각 글자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각각 증명한다.

- (1) 신지녹도전자 뜻으로 본 증거
- (2) 우리 뿌리말로 본 증거
- (3) 최치원 81자로 본 증거
- (4) 金文 一, 二, 三, ..., 十의 뜻으로 본 증거
- (5) 우리 풍속으로 본 증거

3) 신지전자 해독 방법

(1) 이집트의 피라밋 그림이나 고구려 고분벽화가 그림으로 그들의 의사가 전달하고 있듯이 그림도 하나의 글자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시의 글자는 기본적으로 상형문자다. 따라서 일단은 그 모양을 보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려고 했는지를 짐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소개했듯이 그것을 그린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풍습 등 문화를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2)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사용하는 말의 숫자가 적어 현재와 같이 단어가 세분화되지 않았으므로 똑 같은 현대적 단어로서가 아니라 비슷한 의미로만 해독해야지 현대용어로 같은 단어로까지 해독되기를 바라는는 안 된다.

(3) 지금 한자가 그렇듯이 토씨나 접미사 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읽는 사람이 전후 문장과 상황을 보고 토씨와 접미사를 붙여서 해독해야 한다. 즉, 한자 '一石二鳥'를 해독하려면 '하나, 둘, 둘, 새' 이 외에 아무런 토나 접미사도 없으니, '둘 하나에 새 두 마리가 앉았다'는 것인지, '둘 하나로 새 둘을 잡았다'는 것인지는 읽는 사람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신지녹도전자가 우리 숫자 '하나, 둘, 셋, ..., 열'이라 했는데 이 숫자말의 뜻을 설명할 수 있는 열쇠, 즉 앞에서 설명한 'ㄱ, ㄴ, ㄷ, ..., ㅎ' 속에 들어있는 우리말의 속뜻과, 그림문자인 신지녹도전자를 해독한 그림의 뜻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1) 여기서 그 글자 하나하나 읽는 방법을 왜 그렇게 읽어야 하는가는 글쓴이의 카페 게시판 '신지녹도전자 천부경 해독'에 자세히 공개해 있으므로 여기서는 지면상 생략한다.

(5) 금문, 갑골문은 신지녹도전자, 신지 신획과 그 제자 원리가 같으므로 우리 조상이 모자라는 글자를 보충하기 위하여 만든 금문과도 그 풀이가 맞아야 한다. 물론 금문의 풀이에 대해서는 중국인의 해독이 많이 잘못되어 있지만, 그것을 알고 현재 그들의 자료를 이용하면 된다. 글쓴이는 중국의 『圖釋古漢字』(能國榮著, 濟魯書社刊)을 참고하되, 중국인들이 철석한 갑골문보다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쓴 금문을 많이 참고했다.

(6) 우리 민족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홍익인간’의 이념도 " 이것이 홍익인간 이다." 라는 문서는 아무 데도 없다. 그저 우리가 한자 뜻대로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라고 해석할 뿐이다. 그러나 홍익인간은 이 진본 천부경 하나 둘 셋...열 속의 '아홉 열' 이고 이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뿐 아니라 생물의 진화 과정까지 말하는 깊은 뜻이 들어 있다. 이 뜻이 하나 둘 셋...열의 전체적인 뜻의 흐름과도 맞아야 한다. 그러므로 녹도전자, 금문, 갑골문의 바른 해독은 우리의 상고사를 찾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해독원리를 좀 더 찾고, 검증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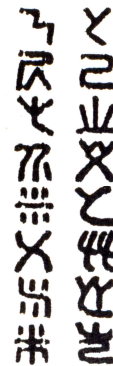
4. 신지녹도전자문 풀이

1) 각 篆字文의 간략한 해독

필자는 이들 각각 다른 전자문들을 모두 해독하여 지은이 카페에 올려놓았지만, 여기서는 지면상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고 해독 결과만 간단하게 소개한다.

(1) 평양 법수교 고비문(구 영변지 게재) 해독

비나이다
계집과 사내가
땅 위에서 열렸(성교)나이다
비나이다
빛님께 둘이서 비나이다.
땅(겨집)과 뱀(사내)이
땅에 서서
열고 나가겠나이다.
둘이 하나되어 씨를 뿌렸사오니
빛님이시어
곡간에 가득하게 세워주소서



<그림18>법
수교 고비문

(2) 안영태 소개 신지 전자 해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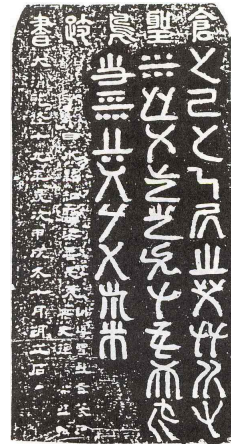
하늘과 땅이
사내를 세우고
계집과 열려 붙어
땅에 세우고
사내가 비니
아들 딸 낳고
어미 아비 둘이 비는도다
계집의 문을 사내가 여니
계집이 뱀(男根)에게
감사기도 하는 도다



<그림19> 안영태, '신지전자'

(3) 창성조적서 비문 해독

비는(기도하는, 바라는) 개울과(여음, 겨집)
비는(기도하는, 바라는) 뱀(男根, 사내)을
땅 위에 세우니 열루는도다
빛을 향하여 둘이 열고 나아가 씨를 심고
둘이서 비니 빛과 땅과 열루어
아기가 나오네
열고 나가 어미 되니
새끼 낳고 씻기어 터에 세우고
곡식을 갈무리 하여 달아매니
빛 받는 밝달(배달)에
집(나라)을 세우는도다.



<그림20>창성조적서
비문

2) 신지녹도전자 진본 천부경 풀이

(1) 한(하나)

① 신지 녹도 전자 '한(하나)'의 뜻으로 본 증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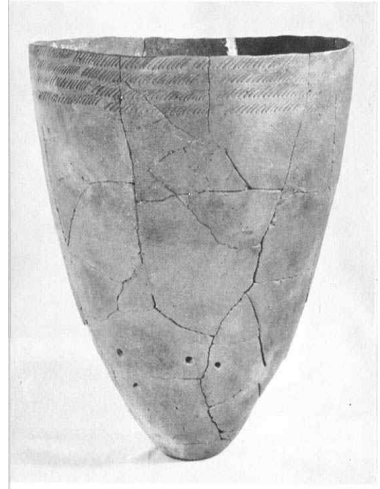
하나 : 진본 천부경의 첫 자인 <그림20>에서 '나무들'은 '하'의 그림으로 '나무들이 햇빛 받는 그림'이다. 즉, 햇빛을 나타내고 싶었던 그림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햇빛을 내



<그림21>

리는 해에게 아침저녁으로 경배했다는 것은 먼저 말했다. 즉, '...환국본기조대에 말하되 옛 풍습은 빛을 숭상하여 해로서 神을 삼고 하늘로써 조상을 삼았으니 만방의 백성들이 믿고 의심치 않아

환한 부족 방식으로 조석으로 경배하였다.' 즉, 저녁에 해가 지면 '해님,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제발 꼭 다시 떠주세요'하고 절하고,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면 '해님, 우리를 잊지 않고 또 떠주시니 정말 고마워요'고 또 절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그때 사람들의 생각으로 당연했다. 따라서 그들의 신앙의 대상은 당연히 '해'이며, 해에서 나오는 '햇빛'이 곧 '하느님'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림21>과 같이 절그릇을 구워 토기를 만들 때도 당연히 자기네 신앙의 대상인 '햇빛 무늬', 즉 '빛살무늬'를 그렸고, 혹시나 해님이 노하실까봐 감히 꽃이나 다른 동물 등은 그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신지족도전자 천부경 16자>에도 '빛에게 기도드리는 뜻의 글자가 무려 3개'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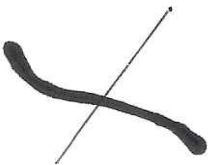


<그림22>고조선 유적지에서 수없이 나타나는 빛살무늬토기

② 신지족도전자 한(하나) 중 '나'의 뜻으로 본 증거



<그림23>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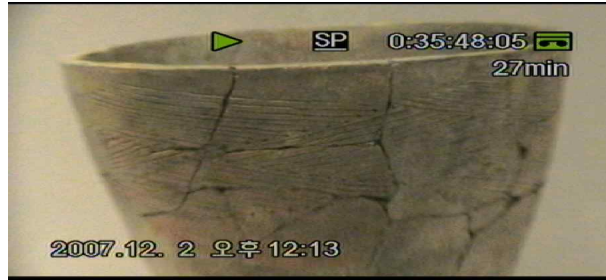
<그림24>변형 나

원래 신지족도전자 천부경 '하나'의 '나' 그림은 <그림22>와 같다. 그러나 전자(篆字)란 도장 새길 때 쓰는 것처럼 일부러 꼬부려 빈 공간에 채우므로 우측에서 내리갈기는 햇살이 너무 휘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펴 보면 <그림23>의 약간 퍼진 'ㄴ' 같은 글자가 되고, 이는 바로 'ㄴ의 모태'이며, 그래서 '누웠다'는 '누리(땅)'를 표시하는 글자이다. 따라서 ㄴ 속에는 '누워 있다'는 뜻이 들어있으니 '누리'는 '땅'이다. 그러므로 '눈'이 '눈'이고 '눈'이며, '눈'이 '눈'이므로 그 성기가 누워 있으니 '눈'이며, 이외 ㄴ으로 시작되는 말은 모두 '누워 있다'는 뜻에만 쓰일 뿐 하늘이나 사람을 말할 때는 쓰이는 일이 없다. 이 누리는 높고 낮은 데가 있으므로 그냥 수평인 一보다는 이 ㄴ이 맞는 글자다.

따라서 이 글자는 위의 '하' 글자를 더 확실히 보장하는 글자로 이 ㄴ을 붙임으로 '한'의 실체'가 성립되며, '인간이나 모든 생명체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햇빛이 누리에 내리는 것'을 표현했다.

또 이 '하 + ㄴ'의 '한'이라는 글자는 우리 조상이 만든 토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빗살무늬와 그 빛을 받는 누리 토기



<그림25>빗살무늬 토기

③ 우리 뿌리말로 본 증거

= 천부인으로 만든 ㄱ, ㄴ, ㄷ, ..., ㅎ 속의 뜻

‘하’ 는 ○인 하늘 천부인에서 나온 글자로, 우리말 '안녕히'나 '안녕이'가 같은 말이듯 ○이나 ㅎ은 같은 말이며, 따라서 이 ○이나 ㅎ으로 시작되는 우리말은 하늘이나 하늘처럼 원융무애한 말에만 쓰이고, 절대 걸림이 있는 땅이나 서고 세우는 뜻이 있는 사람한테는 쓰이는 일이 없다.

우리가 지금 보는 해의 뿌리 말은 바로 '하'였다. 여기에 '갑순이, 갑돌이, 학교 >핵교, 소고기 >쇠고기'할 때처럼 우리말에서 빠질 수 없는 약방의 감초격 접미사 '이'가 붙어 '하+이=해'가 되었다. 또 우리 ㄱ, ㄴ, ㄷ, ..., ㅎ 이외의 현재 모습 ㅏ, ㅑ, ㅓ, ㅕ, ㅗ, ㅣ 등은 천부인으로 만든 글자가 아니므로 '검둥이, 감둥이', 또는 봄에 풀이 돋으면 '파릇파릇, 퍼릇퍼릇, 포릇포릇, 푸릇푸릇'에서 보듯 그 뜻은 같고, 이런 표현은 20만 어휘를 쓰는 현대에는 그 맛이 좀 다를지 모르나 말이라곤 불과 20여 단어밖에 되지 않는 우리 뿌리 말에서는 그게 그 소리다.

또 지금 ㅏ, ㅑ, ㅓ, ㅕ, ㅗ, ㅣ의 모습은 원래는 그렇게 발음도 했으나, 또한 그 중간 발음도 하게 하였으니 그 중간 발음을 세종은 아래아 점으로 표시해 ㅏ 밑에 점 찍고 ㅓ 하면 감, 검, 곶, 굴의 복합어, 즉 그 중간 음으로 발음하게 하였으나, 그 후 세종보다 더 잘난 한글학자들이 세종이 만든 글자 4개를 없애면서 우리의 혀는 어느새 굳어지고 귀는 멀어서 지금 누가 그 발음을 해봐야 분별되지도 않고 발음도 할 수 없다.

또 이 '하'는 또한 '히'도 되어 일본으로 건너가 '朝日'新聞이 '아사히' 新聞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위 신지록도 전자 '하'는 모든 누리의 생명들은 바로 햇빛을 받아야 살아가는 것을 표시했고, 여기서는 나무 둘을 그려놓았는데 이 글자는 나중에 중국인들에

의해 풀 초(艸) 자가 되나 풀이건 나무건 햇빛을 받아야 살아가는 것은 같다.

* 우리말 '한(하나)'의 여러 가지 뜻

우리말에서 '감둥이'와 '검둥이'가 같은 말이고, '포룻포룻, 퍼룻퍼룻, 포룻포룻, 푸룻푸룻' 등의 말들이 같은 말인 것은 세종의 <훈민정음>에는 있던 아래아 ‘ㆍ’, 즉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의 중간 음이 지금은 없어졌으므로 원시 한글에서 모음은 일단 무시 한다. (책 <천부인과 천부경의 비밀>에서 상세 설명)

* 하늘 : 한울 * 하느님 : 한울님 * 밝다 : 한하다 (환하다>한하다) - 햇빛이므로
* 숫자 : 한을 숫자로 쓸 때는 '하나'라 한다. - 해와 햇빛, 하나님은 하나이므로 -
* 크다 : 한밭(한밭, 大田), 한길(큰길), 한물(큰물, 홍수), 한비(큰비), 한새(황새), 한숨(큰 숨), 한아비(큰아비, 할아비), * 한박눈(함박눈), * 한지박(함지박) - 온 누리를 비추는 해와 햇빛은 크므로 * 처음부터 끝까지 같다 : 한결같이(하나의 결 같이) - 해는 한결 같으므로 * 모두가 : 한 반, 한통속, 한가지 - 해는 전부이므로- * 보다 더 제법, 꽤, 크게 : 한결(한결 따습다) - 해는 최상급이므로 * 얼마 : 한동안 - 해는 항상 있으므로 그 중의 어느 때 * 여러 군데 : 한눈팔다(여러 군데 시선을 둔다) - 햇빛은 여러 군데를 비추므로 * 바르다(正確, 가운데) : 한복판, 한가운데, 한가위, 한가을, 한 낮 - 해는 정확하므로 * 가득 찬 : 한 사발, 한뼉, 한평생 - 햇빛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으므로 * 성(盛)하다 : 한더위 - 해는 盛하므로 * 넓다 : 한 데(하늘을 가리지 않는 방 밖 넓은 곳) - 해는 넓은 하늘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 혼자 : 혼자 - 해는 혼자 있으므로 * 많다 : 흔하다 - 햇빛은 많으므로 * 따뜻하다 : 훈훈하다 - 햇빛은 훈훈하므로 * 오래되다 : 현 것, 현 옷 - 해는 오래됐으므로

이상 어느 것을 서로 비교해보더라도 이것은 '하나(한)'의 설명서'이므로 이 신지록도전자 '하나(한)'는 진본 천부경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③ 최치원 81자로 본 증거

一始無始一 天一 地一二 人一三 一積十鉅無匱化三 一妙衍人中天地一 一終無終一 등의 최치원 81자 해독에서 一은 하나(한)인데, 여기에서 ‘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한(하나)'으로 같이 설명한다.

여기서 天一, 地一, 人一의 첫번째 一은 한자 뜻대로 '첫째, 핵심'의 뜻이 있지만, 다음 모든 一은 이두문 형식이므로 우리 한민족 이라는 '한(하나)'라고 해독한다.

④ 金文 一二三…十의 뜻으로 본 증거

먼저 一, 壹부터 보자.



<그림26>一, 壹자 : 『圖釋古漢字』, 能國榮著, 濟魯書社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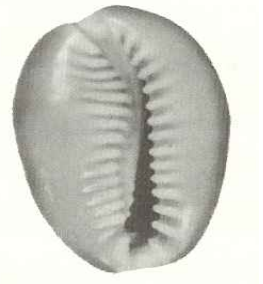
<그림26>에서 중국인의 해설서나 또 갑골문 등 지나족의 때가 묻은 글자는 보지 말고 우리 조상의 글자인 금문(金文)만 보면, 좌측에서 두 번째 금문에서 막대 하나는 그냥 '하늘'이나 '땅'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우측에서 네 번째 금문은 大, 즉 '사람 가랑이 밑에 조개와 조개 다리'가 있다. 大 는 사내가 아니고 계집이기 때문에 다리 사이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가 않다. 이는 다른 금문 사진도 같은데, 가랑이 밑의 조개는 바로 '땅'인 여음(女陰)이다. 즉, 지금 인류학자들은 인류의 초기 돈은 조개(貝)로 만든 貝錢이라고 하나, 그렇다면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다 갑부였을 것이다.

이 '조개'는 실은 '여음' 그림이므로 '여자를 돈 대신 썼다'는 증거는 무수히 나오고, 또 아래 <그림37>에서 보듯 조개가 정말 조개라면 삼지창, 즉 남근으로 그 조개를 찌를 리가 없다.

따라서 우리 화폐의 역사에서 인류 최초의 화폐는 조개였다는 말은 크게 잘못된 말이니, 최초의 돈은 여음이었다고 화폐의 역사도 바꿔야 할 것이다.

<그림27>의 조개 그림을 금문에서는 <그림28>과 같이 표현한 것이 너무도 많으니, 위 <그림26>의 '금문'에서 大 자인 사람 다리 사이 아래 붙은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여음이다.

그런데 이 '여음'은 바로 햇빛을 받는 '땅'이며, 환슬의 天上之光



<그림27>조개



謂之桓, 즉 하늘의 환한 빛을 받아 지상에 밝은 땅(밝달, 밝달임금)을 만드는 곱네의 땅이니 이를 地上之光謂之檀이라 했다.

따라서 '만물의 시작은 햇빛을 받는 땅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니, 이는 좌측에서 두 번째 막대 하나인 금문도 하늘이 아닌 빛 받는 '땅'을 말하는 것이지, 숫자인 막대 하나가 아니다.

<그림28>여음
금문

즉, 이것만 보아도 당시는 숫자도 없었고, 따라서 <신지녹도문 천부경>의 '하' 그림은 진본 천부경이란 말이다.

따라서 이 막대가 '하나'가 '땅'이라는 말은 <신지녹도전자 천부경>의 하나의 '나'에서 '빛 받는 누리'일 수도 있는데, 그 증거는 이 하나인 一을 최치원은 一始無始一, 天一 一 등이라 했기 때문에 필자는 하나인 一은 그 一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日'이라 한 것이다.



日

“日”即太阳。甲骨文、金文、小篆的日字虽写法很多,但一看便知,均可识为日字。甲骨文或写成方形,是因为刀刻不便。金文或在圆环外加放射线,很逼真,但不利作偏旁部首,故未广泛流传使用;其它字形或方中有圆,或圆中有圆。也有学者指出圆环内的一点或一横是指太阳黑子,果真如此,古人对太阳的认识当十分先进了。多数学者认为当中的一点或一横,是指示符号,是指光线和最亮点,以区别空心圆。隶书(汉《西狭颂》)将日字写成方形,中间用“一”隔成两个口,完全脱离了象形字,至今丝毫未变。“日”也多处被借用作它义,随字另释。



<그림29>日 :<圖釋古漢字>, 能國榮著, 濟魯書社刊 인용

<그림29>에서도 중국인 설명이나 갑골문 등 지나족의 때가 묻은 글자는 보지 말고 우리 조상의 글자인 금문(金文)만 보자. 이 그림에서 하늘 천부인인 ○이나 그 속 하늘의 주인인 '해'까지 점으로 표시한 것이나 모두 '하늘'이고 '하느님'이며 '해'이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이라 하면 개성이 없다 하여 한자에는 ○이 없으니, 이 ○속의 점도 차츰 日 자로 변해간다. 그렇다면 어찌 해가 모가 질 수가 있단 말인가.

따라서 중국인은 우리 조상이 만든 금문을 우리말과는 다른 자기네 말에 맞는 한자로 만들다보니 너무나 왜곡된 것이 많아져, 지금 한자는 우리 글자도 아니다. 또 금문 해독을 받듯이 우리말에 바탕을 두고 우리가 해독해야 제대로 되는데, 중국인들이 얼마나 우리 금문을 왜곡했는지 한 가지 근거만 더 본다.

▪ <그림30>는 지금 미국 시카고 부런티지 박물관에 소장된 대략 4,500~5,000년 전의 청동기로 중국 고조선 유적지 아사달로 추정되는 곡부에서 출토됐는데, 제상에 올리는 제기 같은데 그렇다고 술잔 같지는 않으므로 생긴 모형에 맞추어 '코뿔소 술두루미'라 부른다. 그 안쪽에 <그림31>과 같은 아주 특이한 26자의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는데, 이를 읽어보면 우리 밝달임금(단군) 신화를 실화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글귀가 새겨져 있다.



<그림30>코뿔소 술두루미

필자가 읽은 내용은, '환승께서 고조선 유적지에 내려와 곰족과 동화하여 밝달임금을 낳고 우리 민족을 세운다.'는 내용으로 우리 민족에게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담겨져 있다.



<그림31>술두루미 안의 명문

이 글자들의 전문 해독은 글쓴이 카페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전문 해독은 생략하고 맨 앞의 세 글자만 해독해본다.

▪ 먼저 맨 위의 둥근 그림을 기존의 학자들은 어떻게 해독했는지부터 본다.

사마천의 <사기본기>에서는 '전옥(顓頊)'이라 했는데, 顓 자는 '오로지'란 뜻이고 頊은 '멍청한 사람'이라는 뜻이니 이는 '멍청한 사람'을 뜻하는 글자라 하였다. 이는 아마 지나인들은 사람은 개성이 있어야 하는데, 즉 '□'과 같이 모가 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가 없이 둥그니 멍청한 사람으로 본 것 같다. 이는 중국인들이 변질시킨 갑골문 이후의 글자에서 사람의 머리를 □으로 해놓은 것 등 수많은 증거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둥근 모양으로 보아 연못이라 했다. 그런데 금문학자들 중 근대 금문해독의 가장 권위자라는 중국인 낙빈기는 이것을 구슬(珠)로 보았고 우리나라에도 그의 이론

을 그대로 따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우리말, 우리 상식을 전혀 모르는 중국인의 말만 듣다 보니 금문 해독이 잘못된 것은 물론이고, 하느님이나 환승, 밝달임금까지 허깨비라고 우리 역사까지 왜곡하면서 오직 중국인의 조상만이 우리 조상이라고 후학을 가르치기까지 하고 있다.

또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 원용 무애한 '○' 같은 것이 좋고 '□' 같이 모가 자면 '못됐다, 못쓴다.'고 하는 것처럼 천부경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위에서 보다시피

우리말, 우리 상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자에는 ○이 없으니 위 우리말 ○인 '하늘, 해'를 중국인들은 日로 표시한다.

- 다음 글자는 중국 금문학자는 子와 비슷하니 子 자로 해독하였으나, 글쓴이는 그 모양이 '하늘을 나는 정령' 같으므로 아직 子가 아닌 '하늘의 정기'라 해독했으며,
- 그 다음 王 자의 해석은 대체로 같지만, 단 王은 하늘인 一 아래 사내인 太가 있고, 그 아래 다시 땅인 一이 있으니 우리말 '잇کم> 임금'이라 했다.

따라서 중국 금문학자는 위 세 글자를 '명칭이의 아들 왕이...' 또는 '연못의 아들 왕이...', 그리고 낙빈기는 구슬의 아들 이라는 '珠子王이...'라고 해독하고 있다.

그러나 글쓴이는 '하늘의 정기인 잇کم> 임금' 이라고 해독했다. 그래야 뒤의 글자 해독과도 말이 연결된다. 따라서 금문은 반드시 우리말과 우리 상식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금문만 보더라도 '一 즉 한(하나)'이 당시는 숫자가 아니라 '천부경'이었음이 증명된다.

⑤ 우리 풍속으로 본 증거

▪ 우리는 백의민족. 우리는 진본 <천부경 신지녹도전자 하나, 둘, 셋, ..., 열>의 첫 글자 한을 하느님으로 섬기고, 그래서 애국가로도 부르는데, 그 한은 햇빛이므로 우리가 '백의민족'이다.

-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
- 애국가에도 나오는 하느님
- 영산으로 모시는 흰머리산(白頭山)
- 천제를 모시는 희고 큰 산(太白山)
- 일본 신사에 영은산(英彦山)의 풀 옷을 입은 환웅 그림과 개천기록이 있는데, 이 英彦山의 일본 발음이 히코산이므로 우리말로 희고 큰 산, 즉 太白山이 된다.

(2) 둘

① 신지녹도전자 '둘'의 뜻으로 본 증거

<그림32>의 글자는 신지녹도전자 '둘'에 해당하는 글자이다.



<그림32>둘

우선 옛날 사람들이 산(山)을 어떻게 그렸을까를 생각하면 답이 금방 나온다. 산의 그

그림이 아래 그림처럼 변하는 모습을 보자.

<그림33> 산을 간단히 그리면 山이 된다. 이 山은 사람 천부인 세모 '△'가 나중에 삼지창으로 변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면 위 그림의 위 부분을 山이라 한다면 山 아래 'ㄹ'처럼 구부러진 것은 무엇인가? 이는 물어볼 것도 없는 개울, 즉 ㄴ으로 시작된 말 '내(川)'이다. 즉, '산을 휘둘러 나온 내'의 표현을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산이 있고 산 아래 내가 있는 그림'이라면 이것을 무엇이라 할 수 있는가? 이는 바로 '땅'이다. 그러면 옛날에는 '땅'을 뭐라고 했을까?



<그림33>산

② 우리 뿌리말로 본 증거

• 땅의 뜻이 ㄹ보다 강한 'ㄷ'

'ㄷ'은 땅 천부인 'ㄱ'을 분해하여 만든 글자로 '땅'을 의미하는데, 땅 천부인 자체는 'ㄹ'이 아니라 'ㄷ'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땅의 뜻은 오히려 'ㄹ'보다 강하다. 졸저 <천부인과 천부경의 비밀>에서 상세히 설명했듯이 'ㄹ'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을 대표하는 '땅 천부인'이며, 그 뜻은 땅 이라기보다 '높은 땅'을 말하다 보니 '높은 것'의 뜻이 주로 많아 '되 마마, 마님, 마루' 등에 쓰이는데, 이 'ㄷ'은 다같이 'ㄹ'에서 분해된 ㄱ, ㄴ, ㄹ, ㅁ, ㅂ, ㅅ보다 가장 강력한 땅과 땅에 관한 것들의 뜻을 가지고 있다.

• 'ㄷ'으로 시작되는 말들 - 땅은 원래 '다'이다.

세종 조 전에는 된소리가 없었는데 요즘 소주를 '쏘주'라 하고 번데기를 '뽕데기'라 하듯이 '다'가 '따'가 되고(多地 : 訓), 다시 '따'는 '땅'이 되었는가 하면, 한편 '다'는 '달'이 되어 '음달, 양달'이라는 말이 생겼다.

여기서 애초 땅인 '다'가 '당 > 땅'이 되게 'ㅇ'이 붙는 것은, 애초 'ㅇ'은 하늘 천부인으로 '하늘'을 의미하나 하늘은 '생명'이기도 하므로 원래 '땅'이란 불모의 사막이 아닌 '생명이 있는 대지'만을 땅이라 한다.

또 땅인 '다'에 'ㄹ'이 붙어 된 '달'도 땅인데, 여기에 붙어있는 'ㄹ'은 우리말에서 그저 유동적인 의미뿐이고 따라서 'ㄹ'로 시작되는 우리말도 'ㄹ'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ㄹ'은 말의 윤회유 역할만을 한다. 즉, 그렇지 않아도 딱딱한 우리말에 만약 'ㄹ' 발음이 없었더라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혈압이 걸렸을 것이다.

* 달(月) : 하늘에 붙어있는 '달'이 왜 음달, 양달 하는 '땅'과 같은 '달'인가? ㄷ은 ㅇ인 하늘에 비해 '음'이라는 뜻도 있다. 즉, '해'가 양이라면 '달'은 음이므로 여기에 ㄷ이

들어가는 '달'이 된 것이다.

* 다리(脚) :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는 땅이 '달'이니까 이 '달'을 딛고 다니는 기관도 역시 '달'이므로 이 '달'에 우리말의 감초 격 접미사 '이'가 붙어 '달이>다리'가 된 것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한편 '달'은 '해'에 비해서 음이듯 '머리'를 양으로 본다면 '다리'는 음이 된다.

* 다리(橋) : 지금의 다리는 한강대교, 원효대교 등 엄청나게 큰 다리가 연상되나 처음의 다리는 지금처럼 중장비가 없었을 테니 겨우 작은 도랑에 사람의 다리(脚)처럼 가는 나뭇가지 두 개를 걸쳐놓고 건너 다녔을 것으로 추정하여 '다리(脚)>다리(橋)'로 된 것으로 본다.

* 달 (딸, 女) : 세종 전에는 격음이 없었으므로 '딸'을 '달'이라 했으며 '여자'는 일단 '땅'이다. 또 '아들'은 양이고 '딸'은 음이다. 여기서 대략 반만년 전 우리 원시 조상님들이 우리말을 만들 때 벌써 천지인(天地人) 삼극 중에서 음양 양극을 켜다는 증거가 나온다. 즉, <훈민정음> 서문에서 '옛사람들의 말쑤(聲音)들은 모두 음양의 이치가 있었다(故人之聲音皆陰陽之理)'라는 말이 있는데, 이 글을 쓴 글쓴이도 처음에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말인지,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

그러나 천부인을 찾으면서 특히 이 부분에서 이 말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말과 글자는 정말로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천지인 삼극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예의 하나가 지금 위에서 나온 음양의 양극(兩極)에서 음으로 표시되는 '달'일 것이다. 즉, 하늘에 걸려있는 '달(月)'도 '달'이고, '딸(女)'도 '달'이며, '땅(地)'도 '달'이고, '다리(달이脚)'도 결국 '달'이며, '다리(달이橋)'도 '달' 이어서 이들은 전혀 서로 어떤 연관이 없을 것 같아도, 결국은 양(陽)의 반대인 음(陰)을 말하고 있으므로, 이는 처음부터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철학적 논리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증명하고 있다.

* 들판·둔덕 : 모두 ㄷ이며 '땅'이다. (이하 생략)

그러면 이 땅이라는 '달'과 숫자에 나오는 '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는 원시한글에서 통상 그렇듯이 모음혼동이 되었으니 있으나마나 식으로 무시된다. 즉, '달'이라 하건 '둘'이라 하건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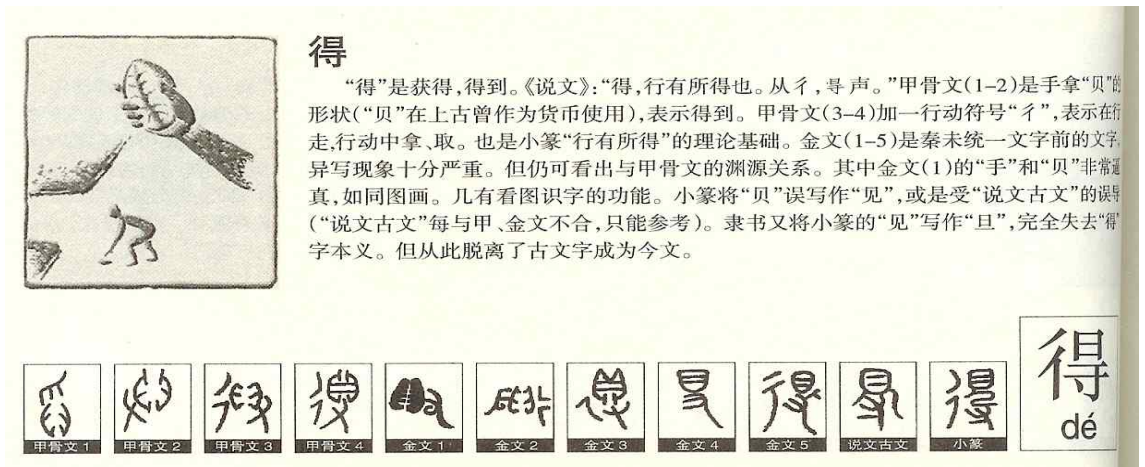
그리고 '하늘을 무형인 정신으로 본다면, 땅인 달은 이 주체를 두(둘)르는 유형의 객체가 된다'는 것이다. 즉, 사람을 예로 들면, '가장 핵심이 되고 첫째가 되지만 무형인 정신을, 그 표현체인 유형의 물질이 둘러서, 비로소 세 번째로 사람으로 완성된다.'는 말이다. 여기서 '둘', '둘르다'는 명사인 물질, '땅' 즉 '달'이 동사인 '두르다'의 '둘'로 바뀐 것뿐이지 그 본질은 같다는 말이다,

③ 최치원 81자로 본 증거

地一二 天二三 地二三 人二三 이것도 '둘'은 숫자가 아니라 '두름'이라고 풀어야 한다.

④ 金文 一二三...十의 뜻으로 본 증거

우리 선조들이 이 신지녹도전자, 또는 초기 가림토와 혼용해서 쓰던 금문, 갑골문의 貳자 제자 원리를 보자.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하는 작대기 두개인 二자는 원래 중국인들이 숫자를 쉽게 쓰기 위해 수천 년 후에 만든 글자이고, 원래 '두른다'는 뜻이 있는 둘은 貳자였다. 우선 무엇인가 얻는다는 '얻을 득(得)'자의 제자 원리부터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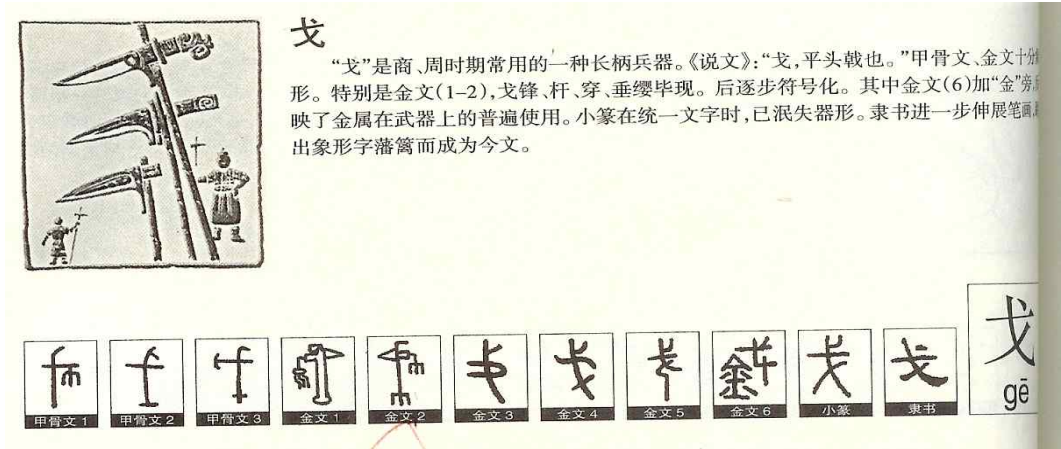
<그림34>得(<圖釋古漢字>, 能國榮著, 濟魯書社刊 인용)

<그림34에서> 金文 1, 2, 3, 4, 5 번은 모두 조개를 잡고 있는 그림이다. 그림 '조개'란 무엇인가? 조개가 격음이 되면 '쪼개'이고, '쪼'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낭자, 성인여음'이며, 처녀가 시집을 가면 그 표시로 쪼를 찢다. 따라서 위 무엇을 얻는다는 得자는 바로 '여음을 얻는다.'는 말이다.

<그림35> 창 과(戈) 자를 보라. '창'이란 무엇인가? 이 금문을 가져다가 자기네 글자를 만든 중국인들은 창이라면 흔히 전쟁무기로 밖에는 알지 못하여 무사 옆에 있는 그림도 창으로 그렸다.

그러나 金文1, 金文 2 번을 보라. 창 자루 밑에 巫具에서 쓰는 '삼지창' 같은 것이 붙어있다. 이것이 전쟁무기인가? 다음 '셋'의 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되겠지만 이 삼지창은 바로 사내 '숫'이다. 따라서 여기의 '창'이란 '여음에 씨를 심는 사내의 창'이란 말

이다. 따라서 이 戈 자의 정확한 뜻은 남근인데, 중국인들은 전쟁 무기인 줄 알고 있으



<그림35>戈(<圖釋古漢字>, 能國榮著, 濟魯書社刊 인용)
니 중국인은 우리 금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36>는 하버드대 박물관에서 청동기에 새겨져있던 그림을 박물관 측에서 사진 찍어 앞에 전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그림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말과 우리 상식, 우리 밤달임금(檀君) 실화를 모르는 미국의 학자는 물론 중국의 금문해독가도 그 이유를 모를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의문으로 남겨놓고 있었다. 즉 이 사진은 '비파형 청동검', 즉 '사내의 숫을 의미하는 삼각형 칼'에 숫을 더 강조하기 위해 '삼지창'을 달아놓은 것이며, 이것이 '사내의 숫'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 그 밑에 '남근', 또는 정액을 손으로 받드는 그림'을 그려놓았으니, 위 金文 1, 2의 실증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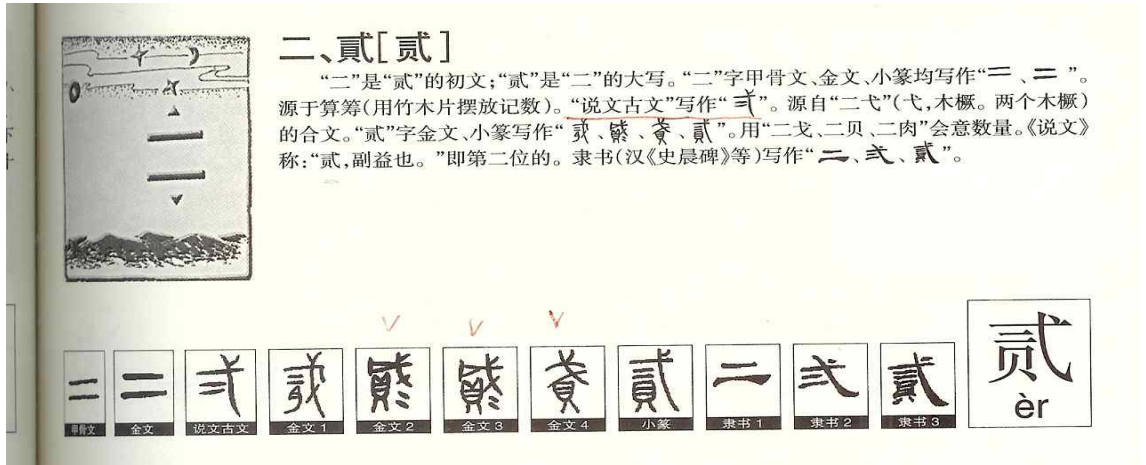
<그림36>비파형 동검 밑에 삼지창이 달린 戈 (하버드대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

다시 아래 <그림37>의 완성된 貳 자의 금문 1, 2, 3, 4를 보면, 노골적으로 '조개 아래 다리 두 개'까지(貝) 달려있고, 그 위에 '창'(戈)이 있다. 따라서 아래 그림에서 작대

기 두 개가 二 이라는 것은 원래 '둘'의 뜻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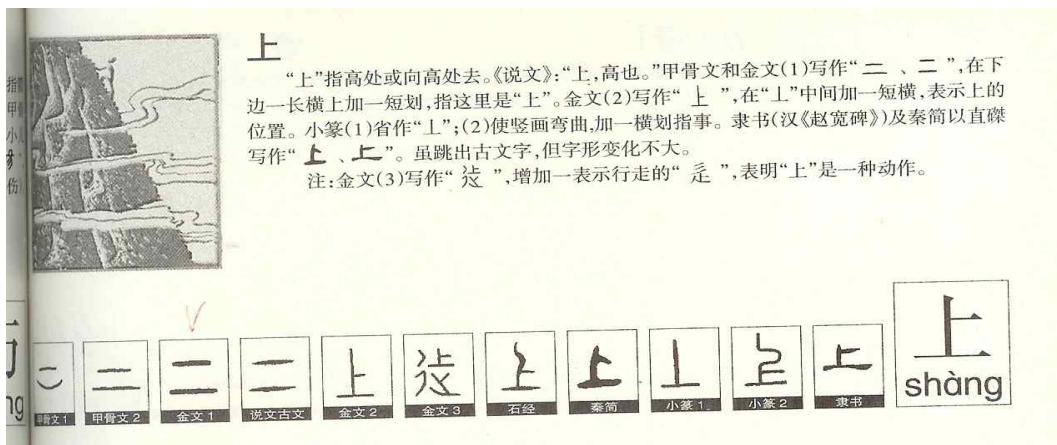
이상 그림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내의 창은 조개인 여음을 찌르고, 그 조개는 창을 두른다'는 말이다.

이로써 글쓴이가 주장하는 '둘'은 '여음'이라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이 확인된다.



<그림37><圖釋古漢字>, 能國榮著, 濟魯書社刊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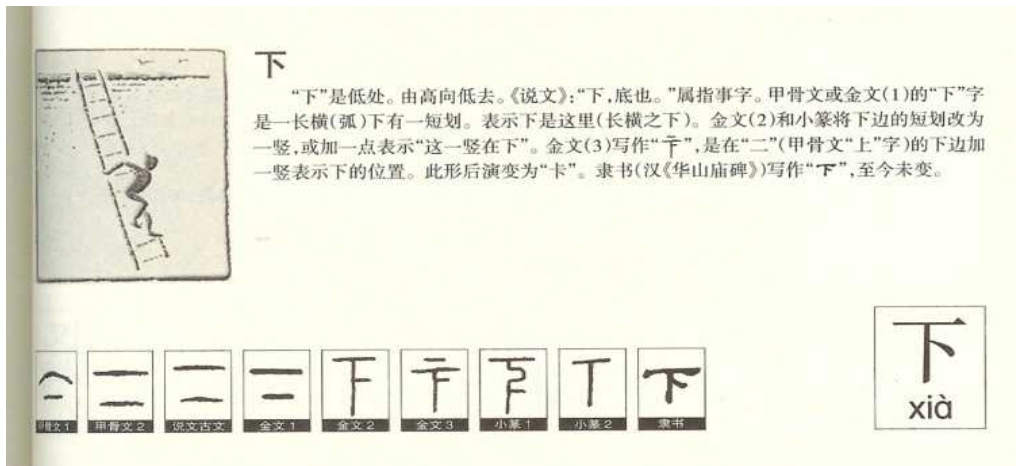
<그림38>에서 金文 1을 보면 막대 두 개로 지금의 二 자와 같다. 그러나 이는 숫자 '둘'이라는 二 자가 아니다. 즉, 一 위에 좀 짧은 막대가 있으면 그것이 '위'라는 표시였고, 이것이 나중 지나인들에 의해 위 上 자가 됐다. 따라서 '二'는 숫자가 아니고 당시는 숫자가 없었다'는 말을 증명하며, 이 역시 중국인은 우리 금문 해독을 잘못된 것이다.



<그림38>二 자와 같은 上 자 :<圖釋古漢字>, 能國榮著, 濟魯書社刊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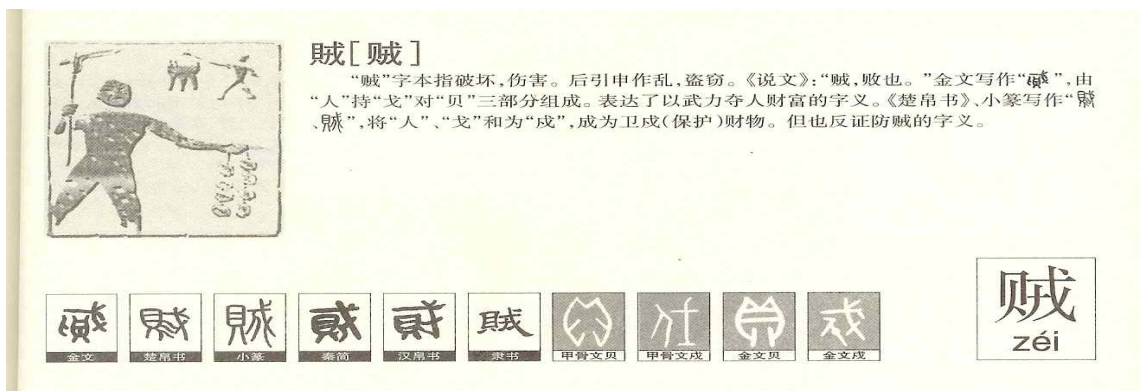
아래 <그림39>의 下 자도 마찬가지이다. 아래에 좀 짧은 막대가 있으면 이것이 '아래'라는 표시이고, 나중에 지나인들은 이것으로 下 자를 만들었다. 따라서 '이 막대 두 개도 숫자가 아니며 당시에는 숫자가 없었다'는 것과 중국인들은 우리 금문을 잘못 해독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들 글자가 '위, 아래'라는 막대 표시가 숫자로 바뀐 것은, 위에서 보듯 갑골문 이후 소전, 대전 때부터이다.



<그림39>下자 : <圖釋古漢字>, 能國榮著, 濟魯書社刊 인용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글자가 있다. 바로<그림40>의 '도적'이라는 적(賊) 자이다.



<그림40>賊(<圖釋古漢字>, 能國榮著, 濟魯書社刊 인용)

이 글자는 보시다시피 위 貳 자와 아주 비슷하다. 그럼 왜 선조들은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을까? 필자는 위에서 '전쟁이란 계집 싸움에서 시작되었다' 했다. 그렇다면 바로 이 '계집의 여음을 훔쳐가는 것이 바로 원수이며 적'이란 말이다. 따라서 말이 만들어질 당시는 이렇게 말이 몇 마디 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신지녹도전자에서는 '사내'를 '山'으로 표시했고, 그 아래 두르는 '여음'은 '땅'이라는 것까지 말하기 위해 ㄹ과 같은 개울. 즉 내(川)로 표시한 것인데, 여기서 '내'의 ㄴ은 바로 원시 가림토 '누리'의 ㄴ이고, ㄴ은 '누워있다'는 뜻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최치원도 地一二 天二三 地二三 人二三 의 二는 '두른다'는 뜻의 '둘'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도 순수한 우리 뿌리 말과 금문, 그리고 최치원의 81자로 '이 신지녹도 전자가 진본 천부경 둘'임을 증명한다.

따라서 이 금문만 보더라도 '二, 즉 둘'이 당시는 숫자가 아니라 진본 천부경이었음'이 증명된다.

⑤ 우리 풍속으로 본 증거

우리는 지금 동그렇게 앉는 것을 '둘러앉는다.'고 말하고, 우리 민속도 공동으로 일하는 것을 '두레'라 하며, 동그런 물 푸는 장치도 '두레'이고, 또 동그렇게 둘러앉아 먹는 밥상도 역시 '두레반'이다. 따라서 '둘'이란 숫자가 아니고 우리말 '두르다'이다.

이상 어느 것을 서로 비교해보더라도 이것은 숫자가 아닌 '두름 >둘'의 설명서이므로 '이 신지녹도 전자 '둘'은 진본 천부경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3) 셋

① 신지 녹도 전자 '셋'의 뜻으로 본 증거



<그림41>셋

<그림40>는 신지녹도전자에서 '셋'에 해당하는 글자이다. 독자님들께서는 이 그림과 또 아래에서 제시되는 우리말 '셋'의 어원을 우리 선조들이 그림으로 그려 쓰던 금문과도 비교해보시고, 당시 가치 기준과 성생활, 그리고 왜 금문은 반드시 우리가 해독해야 하는지와, 지금 중국인들은 자기네 한자의 제자 원리도 모르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 지금 잘못 변형된 한자는 우리 글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이 신지녹도전자가 진본 천부경이라는 사실에 충분히 놀라셔도 좋다.

이 글자는 물론, 아래에서 제시되는 금문 역시 위 '셋' 글자처럼 가지 한 쌍이 하늘을 향하여 한(하나)에서 빛 받는 것 같이 뻗어 있으며, 아래 뿌리 한 쌍은 땅을 향하게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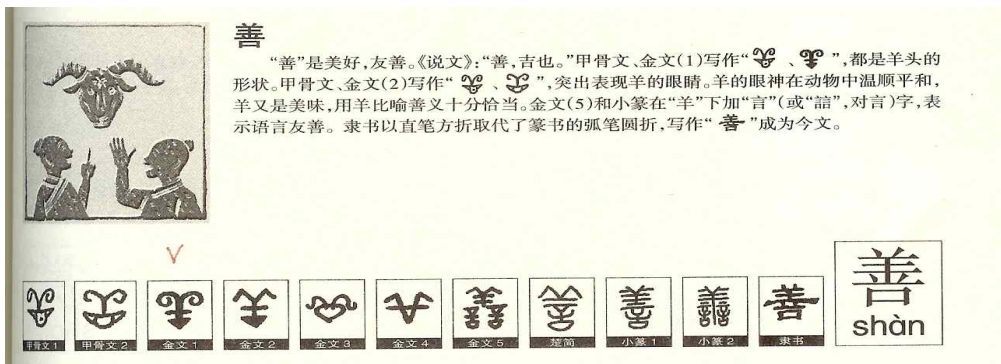
여 땅의 정기를 취하게 하고, 가운데 위로부터 이어지는 나무등치와 합하여 모두 셋이 되는데, 이 셋은 아래 우리 뿌리 말 설명에서도 말하겠지만, ㅅ은 '서다, 세우다'라는 뜻이 있으므로 '서는 것'은 '사람'이고, 이 '서'에 우리의 약방의 감초격 접미사, 즉 '잡' 돌이, 갑순이, 학교 > 핵교, 소고기 > 쇠고기'할 때의 이가 붙으면 서가 세가 되어 '세워진 사람'이 된다. 그런데 셋은 여기에 또 하나의 ㅅ이 붙었으므로 사람에게 또 하나의 서는 것이 붙은 것은 바로 '사내'이고, '사내의 남근'이 되며, <훈몽자회>에도 말하듯 '사내'란 '남근, 즉 솟이 솟을 수 있는 장정'이 된다.

그러나 이 신지록도문이나 금문으로 자기네 글자를 만든 중국인은 위 나뭇가지 한 쌍만은 글자를 쓰기 쉽게 가로로 그어서 木자로 만들었다. 따라서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 '셋'을 뜻하는 나무는 木 자와 같이 '반드시 가지가 한 쌍이 있고 뿌리도 한 쌍이 있어서 나무 등치와 셋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未자 같이 나무 가지가 두 쌍이면 나무등치와 넷이 되므로 이는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는, 솟'을 뜻하는 '셋'이 아니다.

따라서 한자의 원조 금문에서 부터 未 자는 '아니다'라는 뜻의 글자가 되었다. 여기서 '아니다'는 '생명 번식 도구인 솟이 아니다'에서 나온 말인데, 요즘 같이 20만 어휘를 쓰는 지금 우리는 '나무가 아니고 풀이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 등 '아니다'를 말할 때는 반드시 '상대적으로 그것이 아닌 것'에만 쓴다.

그러나 말이라곤 불과 20여 단어에 불과했던, 우리말이 생길 무렵에는 그네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면 모든 것에 다 아니다 라는 말로 다 통했다고 보는데, 이를 예로 들면, 우리말이 만들어 질 무렵에는 얼마나 말과 글자가 부족했는지 <그림42>처럼 '착하다'는 말을 할 때 羊 머리 하나만 그려놓으면 되었던 것이다.



<그림42> 善 : <圖釋古漢字>, 能國榮著, 濟魯書社刊 인용

즉, 羊이란 동물은 호랑이 등 다른 동물에 비해 착하기만 하니 아마 착한 동물을 표

시한 모양이나, 양은 또한 순하기도 하니 '順하다'는 글자가 될 수도 있는데, 당시는 착한 것과 순한 것도 구분되지 않았을 것이니, 그냥 착한 동물의 대표로 '善' 자를 만들어 놓은 모양이다. 즉, 羊은 착하니, '착하다' 하면 자연 羊이 되는 것이다.

이 木자가 '숫나무'가 되고, 이것이 바로 '신단수(神壇樹)'이며, 이것이 전래되어 우리에게는 '서낭나무'가 되었고, 환숫의 고향인 현 바이칼 호 부근의 부라이트, 나나이, 울치족은 물론 몽골에서의 '오보'가 되었는데, 이 오보란 바로 '아보'와 같은 말이며, 이는 바로 우리말 '압>아비' 곧 씨족이 되니 결론적으로 '셋'은 남근인 숫을 말하는 글자이고, 지금 중국인들이 나무로 알고 있는 木은 '나무'가 아니라 '숫'이란 말이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자신들 글자의 제자 원리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금문 해독은 반드시 우리말과 우리 전통을 아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국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한자는 아래 금문해독에서도 이어진다.

그러나 우리도 숫터(蘇塗) 같은 곳에서 임시로 신단수를 취해 천제를 지낼 때는 木의 뿌리까지 파 올 수 없으니 아래 수메르 천제 지낼 때 쓰는 것과 같이 木의 뿌리 대신 가지가 두 쌍인 나무를 써서 나무동치와 셋이 되게 한다. <그림43>의 수메르 그림으로 보면 우리 숫터에 임시로 세웠던 '웅상(雄像) 나무'도 이와 같았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43>수메르 우르문자의 나무들(EBS 방영). 신단수 밑에서 천제를 드리는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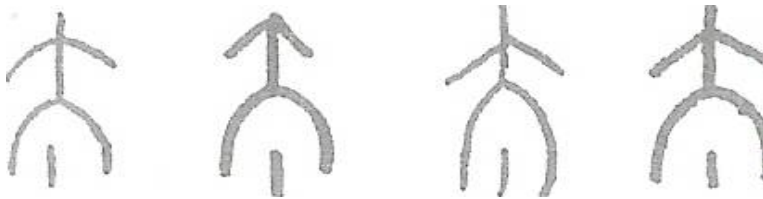
여기서 숫터(蘇塗)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장소인지 모르는 중국의 <이십오사>를 다시 보면,

'...평소 오월 달에 파종을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무리지어 노래부르고 춤추고 술 마시기를 밤낮을 쉬지 않는다. 그 춤은 수 십 인이 일어나 서로 따르며 땅을 구르고 몸을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며 손발로 장단을 맞추는데, 장단은 중국의 탁무(鐸

舞?)와 유사한 데가 있다. 시월에 농사일이 끝나면 역시 이같이 귀신을 믿는데, 나라의 읍마다 각기 한 사람씩 세워 천신을 주체케 하며 그 이름을 천군(天君)¹⁾이라 한다. 또 모든 나라에 각각 특별한 마을이 있는데 이름을 '소도(蘇塗)라 하며, 큰 나무를 세워 방울과 북을 달아놓고²⁾ 귀신을 섬기는데, 어떤 도망자건 그 안에 들어가면 대개 싸움을 할망정 돌려주지는 않는다. 그 소도를 세운 뜻은 부도(浮屠)와 비슷하나 옳고 그름 행하는 바는 다름이 있다.'³⁾

이 숫터에 세웠던 나무가 바로 아래 12환국 중 하나인 수메르인이 천제 지낼 때 쓰던 <그림43>의 나무 그림과 같은 것이다.

신지족도 그림 '셋'(<그림41>)은 원래 <그림47>의 木자 금문처럼 위, 아래가 山처럼 가운데 막대가 더 긴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 이유는 위에 붙은 山 자 모양도 나무 가운데 줄기가 가지보다 길어야 하겠지만, 山 자가 거꾸로 된 아래 삼지창도 가운데가 길어야 하는 것은 <그림44>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듯이 가운데는 남근이고 양 뿌리는 바로 다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남근이 양 다리보다 더 길게 되므로 남근이 땅 바닥에 끌린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금, 갑골문에는 사실 그런 글자도 있다.



<그림44>甲骨文字形字典- 北京長征出版社



<그림45>山

그러나 이는 결코 해학적 과장이 아니다. 사실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는 남근보다 더 위대한 기관은 우리 신체에서 없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모든 신체기관은 오직 그 생명을 창조하는 남근을 먹여 살리는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함을 나타낸 것이고, 요즘 상식으로 얼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우주, 자연의 섭리인 생명 생식을 착각한 생각이다.



<그림46>
역삼지창

- 1) 무속에서 '무당'을 '만신(萬神)' 또는 '천군(天君)'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단군(檀君)'과 같은 뜻이다
- 2) '큰 나무를 세워 방울과 북을 달아놓고'에서의 '북이나 방울'은 지방에 따라 '곡식이나 모래를 담은 자루'일 수도 있는데, 이는 '고환이나 씨들'을 뜻하고, 이외 오색 천을 찢어 새끼에 꼬여 나무 동치에 감는데, 이는 '신성한 음모'를 뜻한다.(현재 민속촌의 나뭇가지에 매단 오색 천을 잘못된 것이다. 반드시 옛날 서낭나무에 걸었던 것과 같이 나무동치에 걸어야 한다)
- 3) …常五月下種訖祭鬼神群聚歌舞飲酒晝夜無休其舞數十人俱起相隨踏地低昂手足相應節奏有似鐸舞十月農功畢亦復如之信鬼神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名之天君又諸國各有別邑名之蘇塗立大木懸鈴鼓事鬼神諸亡逃至其中皆不還之好作賊其立蘇塗之義有似浮屠而所行善惡有異…

따라서 원래 '셋'의 그림은 木 자의 금문이나 <그림45>의 山 자처럼 가운데가 길어야 한다. 그러나 아래 꺼꾸로 된 삼지창(<그림46>)은 때에 따라 위 신지족도전자 그림처럼 삼지창의 길이가 같은 것도 많이 나타난다. 그 이유는 아래 청동기 솥(鼎)의 다리를 만들고, 삼족오 다리를 그리자니 양 다리와 남근을 같게 그려놓은 것도 많이 나타나지만, 이는 신지족도문이나 금문 해독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셋'의 신지족도문 그림은 원래는 무당의 무구(巫具)에서 쓰는 '삼지창이 위 아래로 붙은 것'이며, 이것을 보면 왜 우리 환숯, 밝달임금이 화랭이(男巫)였으며, 왜 우리 토속신앙이 당골래 등 무구에서 '삼지창'을 썼는지, 또는 삼족오의 다리가 왜 '셋'인지, 삼족정의 다리가 왜 셋인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상의 물건들은 모두 사람 천부인 '△'을 상징하는 물건들인데,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환숯님의 고향이고 하느님(桓因)이 사시던 현재 바이칼 호 부근의 하느님 부족의 유전학상 직계손인(우리 민족은 곰 부족과 혼혈) 부라이트, 에벤키족 등의 역사 박물관에 그들의 조상이 입었던 옷과 장신구를 보면, 그 모자에 山에 자루가 달린, 즉 삼지창 모형의 사슴뿔 장식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신지족도문 '하나'의 글자에서 시작하여, 빛을 뜻하는 한(하나)을 땅이 둘러서 이제 셋을 뜻하는 사람 천부인 사내, 남근을 뜻하는 △으로 마감이 되었다. 즉, '하늘이나 땅은 결국 사람을 만들기 위한 부속품이었다.'는 말이며, 그래서 天一 地一 太一 中太一 最上貴, 즉 太一인 '사람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며, 그래서 하느님의 道는 神本主義나 心本主義가 아닌 人本主義이고, 그래서 밝달 천제는 불한(卞韓), 말한(馬韓), 선한(辰韓) 삼한 중 사람 천부인 '선한'의 천제가 되셨던 것이다. 이상 신지족도전자 그림 셋만 보더라도 이는 '하나, 둘, 셋,..., 열이 진본 천부경임'을 증명한다.

② 우리 뿌리말로 본 증거

'스'의 뜻은 '서다, 세우다, 솟다'등이므로 이 '셋'의 뜻은 '사람을 세우다'이고, '사람 중에 서는 것이 붙은 사내'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세 번째'라는 숫자로 쓴다. 즉, '첫째는 하늘, 정신인 '한, 하나'이고, 두 번째는 물질인 달(땅)이 '두르'고 있는 '둘'이며, 그래서 정신이 물질에 둘러싸(물질이 정신을 감싸서) 성립된 것이 세 번째인 '사람(사내, 솟)'이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설명하면 지구에서 생명체의 목적은 오직 생식하기 위해 크고 예뻐지며, 생식이 끝나면 추하게 늙어죽으므로 우주 의식은 오직 생식이

기에, 위에서 말했듯이 어린 아이나 늙은이는 사내가 아니고, <訓蒙字會> ‘丁’에서 말하듯 '장정(壯丁)'이어야 사내가 된다. 따라서 '숫'인 남근이 설(立) 수 있는, 즉 숫을 수 있어 언제든지 생명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젊은 사내이어야 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셋'의 원 의미는 '사내의 발기한 남근'이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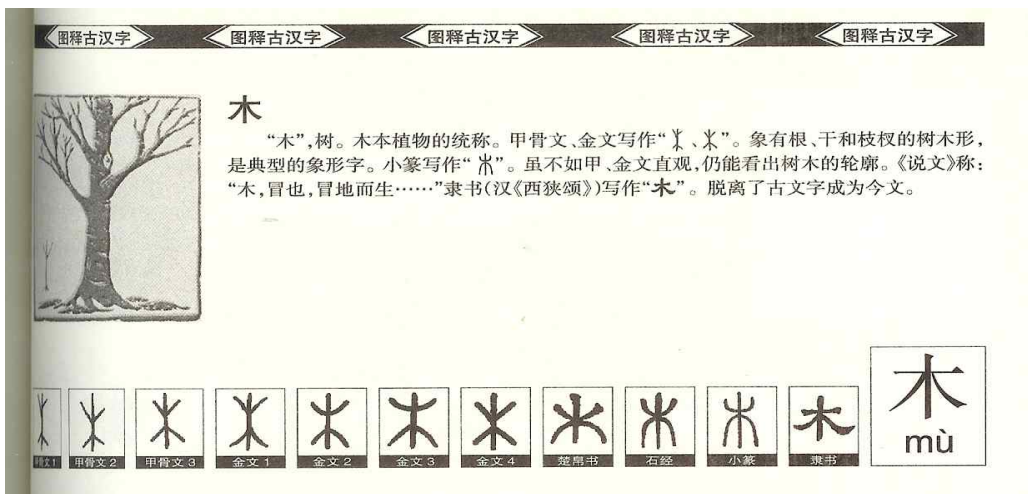
③ 최치원 81자로 본 증거

- 析三極，無匱化三，天二三，地二三，人二三，大三合六，運三四
여기서도 三은 숫자 이전에 우리말 '서다, 세우다, 사람' 이라고 해석한다.

④ 金文 一二三…十의 뜻으로 본 증거

여기서도 또 한 번 놀래셔도 된다. “왜 '셋'의 가지가 한 쌍이어야만 하는가?”는 위 신지독도전자처럼 위가 무속의 삼치창이 되려면, 또는 숫는 것 같은 山 자 모양이 되려면 가지는 반드시 한 쌍이어야 한다. 즉, 앞으로 나올 금문에서 나뭇가지가 未자처럼 두 쌍인 것은 '사내'를 뜻하는 '숫, 셋'이 아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 말이 얼마나 적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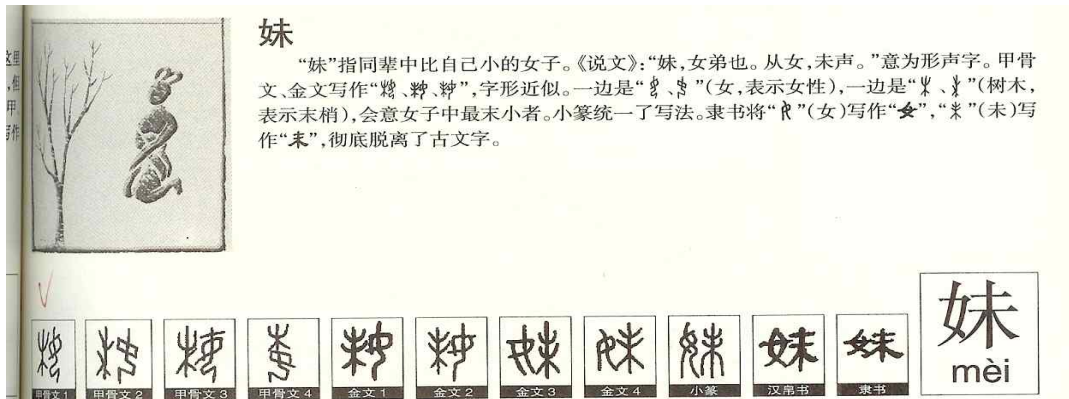
<그림47> 木자 금문은 위 신지독도문 '셋'과 같은 것이다. 단, 山 자와 같은 삼지창의 가운데가 길 뿐이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이 글자로 木자를 만들고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글자의 뜻과 제자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림47>木：<圖釋古漢字>，能國榮著，濟魯書社刊 인용

1) 여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근거문헌은 책 <천부인과 천부경의 비밀> 중 'ㅅ'부에서 숫터(蘇塗)의 의미 참조

다음 위 그림이 확실히 '사내, 숯'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을 제시한다.



<그림48>妹자 : <圖釋古漢字>, 能國榮著, 濟魯書社刊 인용

<그림48>에서 좌측 첫머리 갑골문을 보면, 이 글자의 좌측은 위 '셋'에 나오는 '사내, 숯' 그림이고, 이 그림 우측은 '계집'이다. 사내와 계집의 위치가 '누이' 妹자처럼 된 것이 아니라 뒤바뀐 것은 금문 해독 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 갑골문이 아직 중국인 때가 덜 묻은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다음 우리 조상이 만든 위 금문 1, 2 도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문 3, 4를 보면, 이것은 지금 妹 자와 같다. 그러나 이도 금문 해독 상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서 말한 木 자는 남근인 '숯'이지만, 未 자는 '숯이 아니다'라는 글자이므로, 위 금문 '女+未'로 된 妹 자의 뜻은 '계집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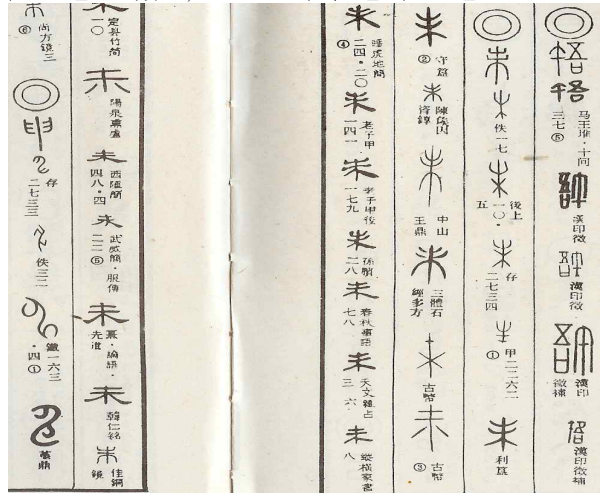
여기서 '계집'이란 말이 남녀가 열릴 때(성교) 성기의 위치에서 온 말이므로, 누이는 '숯'이 열릴 수 있는 계집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 글자로 대략 5천 년 전 우리 선조들의 성생활까지 엿볼 수 있다. 즉, 야생의 조류나 짐승, 특히 코끼리나 유인원 등 동물도 고등동물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본능적으로 근친상간을 앓음으로써 무지렁이 새끼는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즉, 앞으로 일곱에서 설명하겠지만, 수컷들이 어느 정도 크면 그 어미가 냉정하게 무리 밖으로 내쫓아 다른 무리 중에서 짝을 찾게 한다. 따라서 이 妹자를 보면, 우리 선조들도 절대로 근친상간은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이 未 자는 <圖釋古漢字>(能國榮著 濟魯書社刊)에는 없고, 그 대신 <甲金篆隸大字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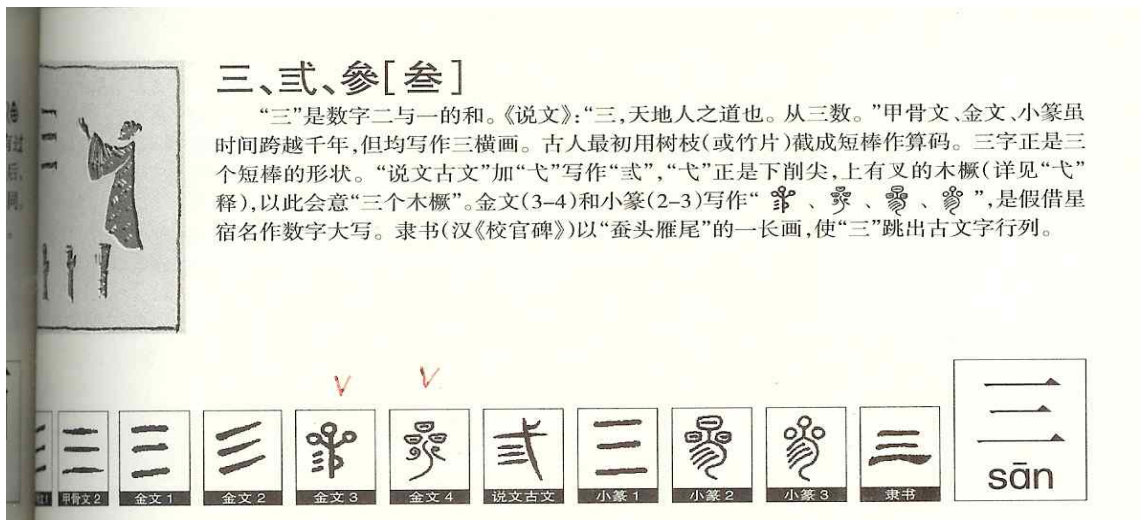
(四川辭書出版社刊)에 나온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木 자를 단순한 나무로 알고 있고, 또 妹 자와 같이 근원도 모르는 채 그대로 한자를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낭하리 석각본에서도 보듯이 일 반 ‘백성’의 의미를 가진 ‘天’자를 ‘하늘’이라 하는²⁾ 등 지금 한자의 거의 절반은 그 뿌리조차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으므로, 한자는 비록 우리 조상이 만든 금문에서 나오기는 했으나 이렇게 변질되었으니 우리 글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금문 해독은 반드시 우리말과 우리 상식으로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림49>未자

그러면 한자 三은 금문에서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림50>三字 : <圖釋古漢字>, 能國榮著, 濟魯書社刊 인용

<그림50>에서도 三은 숫자가 아니다. 금문 1, 2에서 三을 작대기 세 개로 그린 것은

2) 이는 글쓴이 카페의 ‘낭하리 석각본 해독’ 참조

金文 3번에 보이는 '빛줄기 셋'을 딴 그림이 바로 금문2 번이고, 이것은 하늘의 정기를 받는 나무를 생각한 것이다.

즉, 금문 3번 그림은 '하늘의 정기를 받아 음낭(나무등치에 불룩한 것)에 채우는' 그림인데, 왼쪽 아랫부분의 빗금으로 된 줄 3개는 그것이 '하느님의 정기가 빛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보충그림이며, 다음 금문 4는 하늘인 ○속에 점이 있으므로 이는 바로 '해'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금문만으로 보더라도 여기 신지록도 전자가 '셋'임을 증명하며 '三, 즉 셋이 당시는 숫자가 아니라 천부경이었음'이 증명된다.

⑤ 우리 풍속으로 본 증거

위에서 보듯이 '셋'은 바로 '사람'으로 이 땅의 주인이다. 즉, 천부경은 다른 종교와 같이 귀신이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기를 땅이라는 물질이 둘러서 몸으로 만든 존재이니, 바로 사람이 이 땅이 만들어진 목적이고 이 땅의 주인이기에 人本主義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로부터 삼월 삼진날, 아들 삼형제, 살아 삼 배 죽어 삼 배, 초가 삼 간, 삼 세판 등등에서 보듯이 '셋'이라는 숫자를 귀히 여겼고, 그래서 한민족의 행운의 숫자는 바로 '셋'이다.

▪ 신라왕관 : 신라의 벼슬 중에 가장 높은 벼슬 즉 영의정이 '각간(角干)'인데, 이 각간의 관은 위 삼지창에서 보듯 '뿔이 세 개'다. 이 '각간'을 우리말로 하면 角은 '뿔'이고, 干은 '큰' 자를 한자로 쓸 수 없으니까 干을 빌린 것이다. 이는 신라의 왕 '마립간(馬立干)'도 마찬가지로인데, 여기서 '마립'은 '마리, 즉 머리'를 말하고, '간'은 '큰 것'으로 '큰 우두머리'란 뜻이며, 징기스칸의 '칸'도 역시 우리말 '큰'이다. 그러니까 角干의 우리말은 '뿔 큰'이고, 이 말은 지금까지 남아 주먹을 '뿔큰(불끈) 쥐었다' 할 때 쓰기도 한다. 그래서 각간의 관모는 山 자 모양의 큰 뿔 하나가 달린 모자를 썼고, 왕은 山자 형의 큰 뿔이 세 개 겹친 모양의 왕관을 썼다.



<그림51>신라 금관

▪ 삼한 : 단군의 선한이 천제국이고 불한이나 말한이 제후국이었던 이유는, 天一地一太一中太一最上貴, 즉 양팔, 다리를 벌린 大자에 남근까지 붙어 있는 '太一인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천부인, 천부경의 인본주의적 사상 때문이다.

즉, 하늘(정신)과 땅(물질)의 존재 목적은 오직 '사람(사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서는 것'을 상징하는 천부인이 서 있는 세모(△)이고, 이것을 상징해 만든 물건이 山자와 같은 '삼지창'이며, 선한(辰韓)의 후예인 신라의 왕관에서도 그 형태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본 신지문자 '셋'의 윗부분에 나타나는 山 자 그림은 '서는 것(立)'

을 상징하는 '사람 천부인'의 윗부분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다.

이는 우리 풍속으로 보더라도 신지록도 전자 '셋'은 바로 '사람'이며 '사내'이고 '생명'이고, 이 어느 것을 서로 비교해보더라도 이것은 '셋'의 설명서이므로 '이 신지록도 전자 '셋'은 진본 천부경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상 하나 둘 셋이 진본 천부경임을 설명 했듯이, 다음 넷부터 열까지도 아무 뜻도 없는 숫자나 음양오행설이 아니라 역시 우리의 천부경임을 풀어놓았지만, 여기서는 지면상 생략하고,³⁾ 전체 풀이만 올린다.⁴⁾

(4) 진본천부경 전체 풀이

앞에서 증명하는 것은 셋까지만 했지만 16자 모두를 이와 같이 풀이를 했으므로 전체 진지전자 진본 천부경 풀이를 소개한다.

먼저 각 글자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 ① 하나는 '한'으로 정신이며 생명이고, 태양이며 하늘인 하느님으로, 밝고 크고 많다는 등 우리 한민족의 '한'이다.
- ② 둘은 땅이면서 물질로써 두른다는 뜻이 있다.
- ③ 셋은 사람이며 사내이며 서고 솟는 뜻이 있는 남근이다.
- ④ 넷은 계집이며 여음이다.
- ⑤ 다섯은 땅위에 세우다(정착 시키다)는 의미이다.
- ⑥ 여섯은 '어미'로서 번성을 뜻한다.
- ⑦ 일곱은 '일구다'로 부자가 되는 길이다.
- ⑧ 여덟은 '열매 열리다'로 결과인 계집과 자식의 집이다.
- ⑨ 아홉은 압(夫, 男根)으로서 완성된 율타리(鉦), 즉 씨족이다.
- ⑩ 열은 씨족의 율타리, 고민과 불행의 감옥, 물질의 감옥을 열라 했다

여기에 앞에서 말했듯이 토씨를 붙이면 아래와 해석문이 된다.

① 하늘이고 정신인 한이

② 물질을 둘러서 (물질의 옷을 입고)

3) 16자 전체 글자에 대한 풀이는 글쓴이의 카페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4) 원시 글의 성격상 없는 토와 접미사 등은 읽는 이가 붙여야 한다.

- ③ 사내를 만들고
- ④ 계집을 만들어
- ⑤ 땅 위에 세웠으니
- ⑥ 어미 되어 번성 하거라
- ⑦ 사내는 일구어 나아가 부자가 되고
- ⑧ 열매 열린 계집, 자식들의 집을 만드니
- ⑨ 울타리 안의 씨족(국가)이 완성 되면
- ⑩ 씨족의 울타리와 고뇌와 물질의 감옥에서 열고 나가거라.

5. 최치원의 천부경 예찬시 81자 우리말 해독

글쓴이는 천부경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최치원의 81자는 이두문 형식으로 갱부작첩(更復作帖), 즉 다시 시첩으로 지은 것이고, 그 내용도 一始無始一로 시작해서 一終無終一로 끝이 나니 댓귀가 기가 막히게 잘 맞는 시인데, 그 내용은 우리 숫자 하나, 둘, 셋, ..., 열의 설명문이고 '한'의 예찬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해석하려면, 이 81자가 이두문으로 쓰였으므로, 한자라고 한자의 뜻대로 해석하면 절대로 말이 안 되고, 온갖 음양오행설 수리학적 도표 이야기가 나와도 말이 안 된다. 그러나 한자의 뜻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쉽고 아름답게 술술 풀린다.

이두문을 읽는 식으로 해독해본다.

1) 문구별 해독

天符經 : 한울소리

① 一始無始一 : '한'은 시작이 없는 데서 '한'이 시작되고

먼저 '하나'에서 일(一)은 숫자 하나뿐 아니라 '밝고 크고 흰 태양'이며 '하느님'이며 우리 한민족이라는 우리말 '한'을 표현한 것이라 하였다. 이 '한은 언제 시작된 일이 없다'는 말이다. 이 한 속에는 앞에서 보았듯이 무려 20여 개의 긍정적 뜻이 들어있다.

② 析三極無盡本 : 분석하면 삼극인데 근본은 다함이 없다

여기 이 삼은 숫자 '셋'이다. 이 '한' 속에는 天地人 삼극이 들어있는데, 쪼갬다고 한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다른 분들의 해석과 대동소이하나, 한 가지 추가한다면 '한은 하느님이며 태양이고, 그 태양빛은 흰색이지만 그 색을 분해하면 빨강, 노랑, 파란색이지만, 그 색을 다시 합하면 다시 흰 빛이 된다'는 말과 같다.

③ 天一—地—二人—三

天一— : 하늘의 핵심은 '한(하나)'이고

이것을 한자 뜻대로 '하늘 하나는 하나이고...'한다면 말이 되지 않으니 각종 음양오생설, 이상한 도표가 나온다.

그러나 여기서 天一은 天神인 '하늘의 첫째, 핵심'으로 보고 다음 일(一)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우리말 '크고 희고 밝다'는, 무려 20 여개의 긍정적 뜻이 들어있는 우리 한민족의 '한'이다.

地一二. 땅의 첫째는 '둘, 두름(周)'이며

여기서도 地一은 땅 하나가 아니고, '땅의 첫째, 핵심'이며, 다음 이(二)는 숫자 '둘'뿐 아니라 우리말 '땅'이면서 '두르다(周, 함께하다)'로 본다.

人—三. 사람의 핵심은 '사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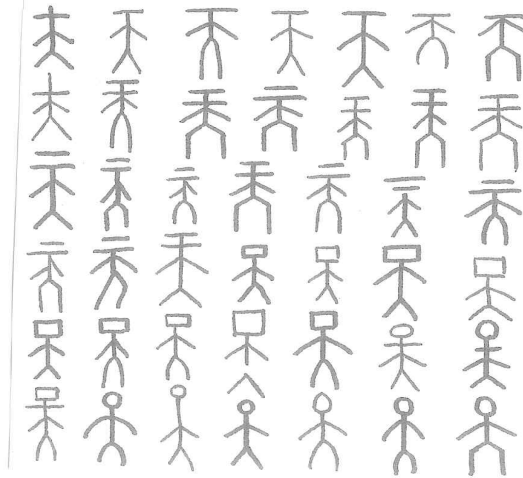
여기서도 人一은 사람 하나가 아니라 '사람의 첫째, 핵심'으로 보고, 다음三是 역시 숫자 '셋'뿐만 아니라 우리말 '사람'인데, 사람 중에 '사내'이다. 고대에는 사람이란 모두 사내로 보았기 때문에 영어 man도 사람이며 사내이다.

* 금문, 갑골문 등 원시 한자에서는 사람을 大로 그려놓았는데, 이것은 사람이 팔 다리를 편 모양이 大자와 같기 때문이다. 이는 하늘 아래 땅 위에 사람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크다는 大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사람 중에 보통 백성이거나 계집이다. 그 이유는 만약 환숫 같이 위대한 사내를 말하려면 大다리 아래 생식기까지 붙은 태(太)자를 쓴다. 따라서 天一 地一 太一 中 太一 最上貴也, 즉 '천일 지일 태일 중 태일이 가장 귀하다'는 말이 생겼다.

* 天 자, 人자의 금문 >갑골문의 그림,

아래에는 天 자 그림도 있지만 夫 자 같은 글자도 많고, 아래쪽으로 가면 아예 사람 머리까지 그려놓았으니 人 자라는 설명도 되는 그림인데, 어떤 사람머리는 口 자 같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그림들은 금문에서 갑골문, 그리고 대전(大篆), 소전(小篆)으로 변하는 순서대로 정리해놓은 것이 아니다. 즉 우리 민족이 만든 초기 금문은 하늘 천부인(○) 모양대로 맨 아래 그림과 같이, 사람은 머리인 ○ 아래 大를 쓰

고, 땅은 땅 천부인대로 口를 쓰지만, 지나 족들은 머리가 ○이면 개성이 없는 멍청이라 하여 머리도 口 자를 썼다. 따라서 아래 글자 중에 머리를 口 자로 그린 것은 우리 조상이 만든 글자가 아니라 후세에 중국인들이 우리 금문을 왜곡시킨 그림이다.



<그림52><甲骨文字형字典>, 北京長征出版社

④ 一積十鉅無匱化三

一積十鉅 : 한을 쌓고 업(鉅, 福, 아홉)을 열면

특히 여기서부터는 이두 형식으로 써진 문장을 한자 해석대로 풀면 말이 되지 않는다. 이 **이두형식** 이란 81자 전체가 처용가처럼 이두는 아니고, 때에 따라 한자의 뜻으로 풀어야 하지만 숫자는 주로 우리말로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를 쌓아 열로 커지면 꺾이지 않는 삼으로 변한다'라고 풀면 말이 안 되어 각종 음양오행설이 나오는 부분 이다.'

여기의 '一' 역시 숫자가 아니라 우리말 '한'이고, 십(十)은 숫자 열이 아니라 우리말 '열다(開)'이며, 鉅는 크다가 아니고 우리말 '울타리 안의 씨족'인데 '아홉'과 같은 뜻이 있다.

이 鉅 자에 대하여 오해가 많으니 자세히 알아본다. 이를 만약 다른 사람들처럼 클거 자이니 '크다'라고 해독하면 그야말로 천 길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한자는 그 변이 그 글자의 뜻을 말해 주므로 삼 수 변(彡)이 붙으면 반드시 물과 관계가 있고, 木자 변이 붙으면 나무와 관련이 있는 등 그 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최치원이 鉅 자를 '크다'라는 뜻으로 쓰고 싶었다면 간단하게 巨

자만 써도 되는데 굳이 쇠金변이 붙은 '鉅' 자를 택했을 리가 없다. 이 鉅 는 큰 옥편을 찾아보면 鉤鉅也라 했으니 이는 '걸림쇠', 즉 '닭시의 미늘'과 같은 것이고, 지금 '철조망'과 같은 '울타리'이며, 이 말은 통감 12권 한기에 '도적들이 일어나지 못하였으며 더욱 잡아 막기(鉤鉅)를 잘하고 사정을 알아내어 마을에서 돈 만드는 간교함을 모두 알아내었다.'(盜賊不得發尤善爲鉤鉅以得事情閭里銖兩之姦皆知之 - 通鑑12券漢記)라는 말도 있으니, 이는 분명 '씨족의 울타리'이며, 또 요즘 말로 '국경'도 된다.

無匱化三 : 께가 없는 사람으로 승화한다. (대 자유인이 된다)

無匱는 다른 사람들의 해석처럼 '껴짜이 없으니 자유'이고 化三은 한자 해석대로 '숫자 셋으로 화한다.'가 아니라, 우리 글자 ㅅ이 서다, 사람 등의 뜻이 있으며, 최치원도 人一三 이라 했으니 '사람, 사내로 승화한다.' 이다.

그런데 여기 無匱化三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 첫째 글쓴이는 '자기 씨족의 울타리를 열고 타 씨족과 동화하면 종족이 우수해 지고 종족 간 싸움도 없어 지는 것만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최치원은 역시 성자이다. 자기 씨족의 울타리뿐 아니라 신지녹도문 천부경 하나, 둘, 셋에서 보듯 **사람은 정신인 하늘을 물질인 몸으로 둘러서 태어난 존재이니** 둘째로는 어떤 물질이나 돈, 그리고 권력까지도 匱라는 감옥이고, 그래서 그 감옥을 열고 나가면 **내 것이 우리 것이** 되어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보다 행복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셋째는 때가 되면 그 몸뚱이의 옷을 벗고 羽化登仙하여 신선이 된다'는 말이 이 無匱化三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이는 또 천부경의 핵심인 '한'은 天地人으로 분화되지만, 결론은 다시 '한'으로 회귀하고 또 순환한다. '한'인 天은 地와 함께 人을 만들지만, 그 人은 이 지상에서 부자 되어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은 十에서 다시 '한'으로 회귀하고, 그 '한'은 다시 地와 합작하여 人을 만들고, 이것이 천부경의 하나, 둘, 셋, ..., 열이고, 이를 최치원은 그의 81자에서 一積十鉅無匱化三 이라고 표현했다. 즉, 一析三極이지만 歸一會三이고, 해의 색깔은 원래 흰색인데 이를 天地人으로 나누면 빨강, 노랑, 초록, 삼원색이 되고, 이를 합하면 다시 흰색이 되어 신선이 되는 것을 잘도 설명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놀이 가위, 바위, 보와 비유할 수 있다. '보'인 天은 地인 '주먹'을 감싸줘서 이기지만 결국 人인 '가위'에게 지고, 人은 地인 주먹, 즉 물질에 얽매어 있어 地가 人을 이기는 것 같으나 地는 天에 감싸여 있고, 天은 人을 이길 수 없으니 이것은 상호 순환원리이고, 결국 天地人은 '한' 하나가 순환하는 것이다.

⑤ 天二三 地二三 人二三

天二三 : 하늘은 둘(둘러서)로 세워지고

여기서 한자 뜻대로 '하늘 둘은 셋이...' , 한다거나 '하나는 둘이 되고 셋이 된다'한다면 뒤에 오는 말 地 二 三과 연결도 안 되며, 아래 大三合六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흔히들 하늘은 짝인 땅이 있으니 둘 이라 한다거나 또는 하늘은 낮과 밤 이 있으므로 둘 이라 하고 더러는 하늘은 별 등 물질과 허공들로 이루어졌으니 둘 이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하늘은 둘이 아니라 여섯이 된다고 했다.

따라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얄은 뜻보다는, 하늘 성분 중에는 땅과 사람이라는 다른 성분도 잠재해 있으니, 결국 하늘은 이 다른 성분들까지 둘러서 세워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늘은 땅과 사람까지 포함했으니 하늘은 셋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하늘이 주체가 되고 땅과 사람은 객체에 불과한, 그저 두루 하는 존재이니 하늘, 땅, 사람 셋이 한 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一析三極이 되기 전 한이 되므로 삼극으로 나누어진 하늘의 주체가 없어져 하늘은 둘러서 세워졌다 는 天二三 을 쓴 것이다.

地二三 : 땅도 둘(둘러서)로 세워지며

땅 역시 짝인 하늘이 있고 또 땅도 바다와 육지가등 둘이 있으며 땅 역시 밤과 낮이 있기때문에 땅이 단순하게 둘로 이루어 졌다고 해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하늘처럼 하늘과 사람의 성분도 포함해서 둘러서 세워졌다 해야 할 것이고

人二三 : 사람도 둘(두루)로 세워지나니

사람 역시 남녀가 있어 둘로 세워졌다 할 수도 있으나, 사람이란 요즘 젊은이들 처럼 남녀 자기네들뿐이 아니라 원래는 가족, 씨족(사회, 국가)과 어울려야 진정한 사람이고 또 사람도 정신과 육체가 있으니 둘로 이루어져 있다 할 수 있어서 사람도 둘로 이루어졌다고 할 만하나 이렇게 되면 사람도 둘 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이 역시 그런 얄은 뜻 뿐 아니라 위 하늘, 땅처럼 하늘과 땅이 두루 해서 세워졌다 해야 나중에 나오는 人中天地一과 말이 연결될 것이다.

여기서 三은 이상 위에서 말한 대로 숫자 셋이 아니라 천부인으로 만든 人의 뜻은 원래 서다, 사람, 숫다 등의 뜻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세우다로 해석해야 한다.

⑥ 大三合六生七八九

大三合六 : 큰 셋이 합한 어섯(六, 母)은

大三은 위에서 흔히들 해석한 대로 天地人으로 이것이 둘씩으로 이루어졌으니 '

여섯'이라고 할 만하나, 이 大는 는 금문에도 그렇듯이 네 활개를 편 사람인데 태(太)자 처럼 생식기가 붙지 않은 여자이거나 또는 환숫처럼 사내답지 못한 일반 백성이라 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신비에 싸여 있던 <그림53> 남해 낭하리 석각본을 해독해 보면 天 자가 환숫의 수레를 밀고 있다. 그렇다면 아무리 환숫이 위 대해도 하느님까지 해당되는 하늘이 환숫의 수레나 밀고 있을 수는 없다. 이는 大 자와 같은 일반 백성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함부로 날뛰니 저 하늘을 끌어 내려 머리에 덮은 글자이므로 지금 중국인들이 天 자를 하늘로 보는 것은 우리 조상이 만든 금문을 완전 왜곡한 잘못 만든 글자이다.⁵⁾



<그림53>낭하리 석각

따라서 위 大는 계집이거나 일반 백성인데 계집이 수레를 밀 수도 없으니 여기 낭하리 석각본의 大 자는 일반 백성으로 본다.

그러나 人一三 에서 三은 이미 사내임을 밝혔으니 이 大三合六의 大는 크다는 뜻이나 못난 사내가 아니라 계집이란 말이고, 이는 금문, 갑골문에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 이야기니 어문학의 성자인 최치원을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따라서 大三合六 은 계집과 사내가 합해진 '어숫' 즉 母이며 '번성'이라고 해독한다.

5)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발달 임금 때 기록으로 추정되는 낭하리 석각본에서 환숫의 수레를 天이 밀고 있다. 이 부분 제시한 이론은 글쓴이 카페 '낭하리 석각본 해독' 참조

즉 신지족도문 천부경의 하나 둘 셋...열 에서는 사내와 계집을 셋, 넷으로 표시해 놔는데, 여기 최치원은 사내는 三으로 표시해 놓았고 계집은 大자로 표시해 놓아 오직 한자나 숭상하는 당시 학자나 지금 학자들을 놀리고 있으니, 이 최치원의 81자가 쉽게 해독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계집과 사내가 습 하면 자식이 나오니 어미, 또는 번성이라는 어숙, 이 된다는 말인데 이 어숙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세종 후 100 년 후에 나온 訓蒙字會만 보더라도 六은 '어숙 육' 자인데 이 어숙의 뜻은 '어미(母)'이기 때문에 '思母曲'이 '엇노리'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어미가 아니고 '우주 만물의 번성의 원리'이다. 그러니까 '큰 셋이 합한 여섯은...'하고 숫자를 말할 게 아니라 '계집과 사내가 합해진 어숙은...'하고 '어미, 번성'으로 해석해야 다음 말이 이어진다.

生 七 八 九 : 일구는 사내와, 여름(열매 豊, 여름 좋을 풍.訓蒙字會)의 계집과, 씨족의 울타리인 압(아홉, 씨족)을 낳는데, 이것도 한자 뜻대로 '여섯이 일곱, 여덟, 아홉을 낳는다.'고 해석하면 여섯에서 다시 하나, 둘, 셋을 더하면 된다는 등 초등학교 산수공부가 된다.

'일곱'의 우리말은 '일(事), 일구다', 즉 '일구어나가는 진로'이다. 그렇다면 일꾼다는 것은 무엇을 일구는가? 말이란 반드시 강력한 자극이 있어야 만들어지니 '일곱의 일구는 것'은 사내가 그 열매인 자식을 낳기 위한 '계집'을 일구는 것이고, '여덟'은 그 사내가 일꾼 '처자식'이 되며, '아홉'은 '씨족(사회 국가)'이 된다.

따라서 사내는 자기네 가족과 안주하다가는 근친상간이 되니 반드시 다른 부족 씨를 일구어 그 열매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지금 사자나 코끼리 등 동물들만 봐도 숫놈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그 어미는 반듯이 자기 무리에서 냉정히 내 쫓는 것과 같다.

따라서 계집과 사내가 열루어 다시 아들을 낳으면 그 사내는 반듯이 일구러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 가족과 그 씨족을 위한 것이므로 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바로 천부경 수행의 길은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이다.

⑦ 運三四成環五七

運三四 : 사내와 계집을 운용하여

運은 '운영' 또는 '운용'으로 보고, 三 즉 '셋'의 우리말은 먼저 말한 대로 '사람'이며 그 핵심인 '사내'이고, 四 즉 '넷'은 우리말로 사내의 상대인 '너'이니 '계집'이다. 이 너가 계집이라는 근거는 <논어>, <서경>에도 너는 女자이며, 또 지금 너 汝 자는 삼수변에 女, 즉 '개울에서 미역 감는 계집'으로 발가벗은 계집을 말하니

언제든지 사내의 상대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너**가 **네**가 된 것은 우리말에는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접미사 이가 붙어 '너 + 이 = 네'인데 그래서 '돌쇠네, 삼돌네' 하면 이는 돌쇠나 삼돌이가 아니라 '그의 계집'이며, 또 배뱅이 굿에서 '세월네, 네월네'가 다 '계집'이고 하회탈춤에서도 부네가 양반이나 중을 띄는 '계집'이며, 요즘 順禮니 順女니 하는 이름의 禮, 女도 알고 보면 모두 이 네를 한자화한 것이다. 따라서 運三四는 '사내와 계집을 운용하여'란 말이다.

成環五七 : (셋, 넷과) 다섯과 일곱(여덟, 아홉)으로 동아리는 이루니

'다섯'의 우리말은 '땅에 세우다'이다. 즉, 세종 전에는 격음이 아니었으니 <훈몽자회>만 보더라도 地는 따地가 아니라 다地였다. 따라서 다는 '땅'이고 셋은 '세우다'이므로 '땅에 세우다'이며, '일곱'은 '자식과 그 집과 씨족을 일구는 사내'라 했다.

成環은 고리, 또는 '동그라미'가 아니고 '동아리', 즉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시쳇말로 '서클을 만든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成環五七을 제대로 말하면 三四五 (六) 七八九 에서 三四와 八九를 생략하고, '五七로 처자식과 씨족의 한 동아리를 만든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成環五七은 어숫(六)보다 먼저 三四는 말했고, 나중 八九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아니 생략한 말이다.

* 천부인 ㄱㄴㅇ…ㅎ 으로 풀어본 運三四成環五七

우리 뿌리 말에서 '검둥이'와 '감둥이'에서 보듯이 모음은 혼동되니 이는 천부인으로 만든 글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부인으로 만든 ㄱㄴㅇ…ㅎ의 뜻으로 진본 천부경 하나 둘 셋…열로 위 運三四成環五七 을 풀어보자.

셋, 넷, 다섯, 여섯의 의미는 한(하나)인 하늘의 정기가 땅인 물질에 돌리어 사내인 셋과 계집인 넷과 땅에 선다는 다섯과 어미, 번성 이라는 어숫을 세운다는 뜻으로 쓰여 지기 때문에 셋, 넷, 다섯, 어숫에는 모두 ㅅ이 붙는다.

그러나 어숫은 母, 번성의 뜻이 있으므로 이 하늘의 섭리인 ㅇ이 ㅅ으로 세워준 것들을 일곱, 여덟, 아홉으로 번성시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는 모두 ㅇ이 붙는 것이며, 또한 이 어숫은 일곱, 여덟, 아홉을 보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곱, 여덟, 아홉은 보관의 뜻이 있는 ㅂ이 모두 붙는다.

그러니까 이 어숫에만 ㅅ과 ㅇ이 다 붙는 것이며, 열은 열고 나가 다시 한으로 복귀 하는 것이므로 논할 필요는 없으나, 굳이 말한다면 열은 열고 나가 한(하나)으로 복귀 하는 것이니 개인의 죽음까지도 말하므로 어숫이 세운 것도 아니

다. 따라서 열 에는 스이 붙지 않으나 그 대신 죽더라도 자연의 섭리대로 순응하며 죽을 것이니 흐르는 뜻이 있는 ㄹ이 붙는다.

또 이 ㄹ은 사내가 사랑으로 일곱, 여덟을 열릴 때 필요한 윤회유, 즉 사내가 처자식을 일구는데도 쓰이므로 일곱, 여덟에는 쓰이나 씨족(사회, 국가)으로 동아리를 이루는 아홉에까지 쓸 필요가 없으니 아홉에는 ㄹ이 없다.

그러니까 어숫은 ‘셋, 넷, 다섯’과 ‘일곱, 여덟, 아홉’의 중간’에 서서 ‘스과 ㅅ을 양쪽으로 잡고 있는 형국’이며 이것이 바로 ‘어숫’은 천지만물이 변성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 六 자가 최치원의 81자 중앙에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이렇게 천부인으로 만든 우리 글자 ㄱㄴㄷ…등의 뜻과 신지독도문 천부경 하나 둘 셋…열의 뜻은 씨줄과 날줄처럼 같이 한 쌍으로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다.

⑧ 一妙衍萬往萬來 : '한'은 신묘하기가 만 번 오가며 쓰임새는 변해도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 서부터가 '하나, 둘, 셋, …, 열'인 하느님의 교훈 천부경의 핵심인 '한'의 예찬문이다. 최치원은 위에서 하느님 교훈인 신지독도 전자가 우리의 숫자 '하나, 둘, 셋, …, 열'임을 알고, 그것을 설명하여 대략적인 우리 숫자의 뜻을 말하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하느님 즉 '한'을 예찬하는 것이다.

위에서 '한은 신묘하기가…'했는데 어떻게 신묘한가? '아무리 많이 왔다 갔다 하여 쓰임새는 많아도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 부분부터는 다른 이들의 해석과 대동소이하다.

⑨ 用變不動本 : 쓰임새는 변하나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 하나는 위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 설명에서 한을 분해하면 천지인 삼태극처럼 빛의 삼원색이 되지만, 이를 다시 합하면 다시 원래 한인 흰색이 되고 또 이 흰 한에서 다른 물질에 반사되어, 즉 萬往萬來하여 만들어진 만물색도 그 뿌리는 역시 한인 흰색이라는 것이니 이 현대 과학이론은 바로 위 一妙衍萬往萬來 用變不動本을 잘도 설명한 것이고, 따라서 위 천부경이론은 점술, 음양이론이 아니라 이렇게 과학적 이론이라는 것이다.

⑩ 本心本太陽昂明 : 본심은 태양을 근본으로 밝음을 우리름에 있으며

최치원은 신지독도 문자를 해독하면서 글쓰기가 아래 신지독도문 '하나'에서 설명하듯이 한(하나)는 빛을 받는 나무와 빛을 받는 대지를 보고 '빛, 즉 태양'을 '한'이라

고 한 것이다.

그리고 글쓴이도 ㄱ, ㄴ, ㄷ 등 우리 글자 속에 들어있는 뜻까지 찾아 '한'의 글자풀이를 하며 '한'이 '빛'이며 '태양'이고 '하느님'이라 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해주는 대목이 바로 여기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 생명의 근원인 '한', 즉 '태양'의 광명을 우러러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임승국 박사의 <한단고기> 166쪽 해설에서, '朝代記曰古俗崇尚光明以日爲神以天爲祖…', 즉 '조대기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옛 풍속은 광명을 숭상하였으니 해로써 신을 삼고 하늘로써 조상을 삼았다…'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주를 단 것을 보면, 위 <조대기>의 기록이 틀렸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는 '…어둠 속에서 광명을 향해 뻗는 것은 비단 광명족뿐 아니라 동식물 전반의 본능이요, 법칙이다. 向日性을 민족의 특성으로 본다면 우리 민족은 다만 동물마냥, 향일성 식물마냥 철학도 신앙도 없는 민족이 된다. 우리는 '하늘 >하느> 한'의 음운법칙을 갖는 민족으로 '하늘님 >하느님 >한님'을 조상으로 모시는…'이라고 자신의 주를 달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을 보면 모순이 보인다. 인간도, 우리 민족도 우선은 생물이고, 생물의 본성은 해를 지향하는 것이다. 생물이 자연 섭리인 해를 지향하는 것이 과연 철학도 신앙도 없다는 말인가? 도대체 철학은 자연 섭리를 떠나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해를 지향하지 않고 귀신이나 지향한다는 말인가? 우리가 해를 지향했다는 위 <조대기> 기록은 '우리 민족이 너무나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그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白衣민족인 이유와, 우리 백의민족의 왕에게만 황제의 칭호를 붙여야 한다는 빗금(/) 아래 日자인 白자와, 그 밑에 王자로 이루어진 皇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결국 그분의 번역은 잘된 것도 많지만, 잘못된 것도 많기에 후학들이 혼동할 것 같아 이에 바로 잡는다.

따라서 우리가 해, 햇빛 민족이라면 일본과 같은 민족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이는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사실 일본인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은 다 우리와 같은 몽골반점이 있고, 지금 일본 순수한 말의 70% 이상이 우리 뿌리 말이며, 또 日本이라는 국호는 우리 선조가 일본으로 건너가 만들어주었다는 근거가 얼마든지 있다.

⑪ 人中天地一 : 사람 가운데 천지의 '한' 이 있나니

위에서 '한'을 분석하면 삼극이 되고, 이는 天一 地一 人一,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 하였고, 또 天二 地二 人二에서 하늘은 땅과 사람을 두루 포함하고, 땅은

하늘과 사람을 두루 포함하며, 사람은 하늘과 땅을 두루 포함한다 하였으니, 사람 속에 하늘과 땅의 성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人乃天이 아니라 원론적으로 말하면 人乃天地인 것이다.

⑫ 一終無終一：'한'은 끝이 없는 데서 '한'이 끝난다.

참으로 처음 시작한 一始無始一 글귀와 잘도 대응이 되는 詩귀이다.

먼저 '한'은 시작이 없는 데서 한이 시작되었으니 그 마침도 마침이 없는 데서 마쳐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으로 보아 최치원의 81 자는 위 신지록도문 천부경을 그대로 번역한 번역문이 아니라, 그 진본 천부경을 예찬한 예찬시라는 것이다. 또 최치원은 81자 중에서 분명 우리 숫자 '하나, 둘, 셋'의 뜻을 설명했다. 이것은 최치원이 81자가 진본 천부경, 그러니까 신지록도전자 천부경을 해독하고 난 후 그에 대한 예찬문과 설명문이라고 한 근거가 된다.

(2) 전문해독

天 符 經

한 울 소리

- | | |
|-------------|---|
| ① 一始無始一 | '한'은 시작이 없는 데서 '한'이 시작 되고 |
| ② 析三極無盡本 | 쪼개면 삼극인데 근본은 다함은 없느니라. |
| ③ 天一一地一二人一三 | 하늘의 핵심인 '한'이 땅의 핵심에 돌리어 사람의 핵심인 사내를 세웠나니 |
| ④ 一積十鉅無匱化三 | 한이 싸이고 씨족의 울타리를 열면 결핍이 없는 사내로 승화하느니라. |
| ⑤ 天二三地二三人二三 | 하늘은 둘려서 세워지고 땅도 둘려서 세워지며 사람도 둘려서 세워지나니 |
| ⑥ 大三合六生七八九 | 계집과 사내가 어울르면 母인 번성이 되어 또 사내와 계집과 씨족을 낳는다. |
| ⑦ 運三四成環五七 | 이 사내와 계집을 땅에 세우고 사내는 일구게 하여 한 동아리를 이루니 |
| ⑧ 一妙衍萬往萬來 | '한'은 신묘하게 만 번 오가도 |
| ⑨ 用變不動本 | 쓰임새는 변하나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
| ⑩ 本心本太陽昴明 | 본심은 태양을 근본으로 밝음을 우러름에 있나니 |
| ⑪ 人中天地一 | 사람 가운데 천지의 '한'이 있으며 |
| ⑫ 一終無終一 | '한'은 끝이 없는 데서 '한'이 끝나느니라. |

(3) 최치원의 고민

최치원이 이 하나, 둘, 셋까지만 힌트를 주고 나머지 숫자는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먼저 설명했다. 따라서 당시 선비들은 자기 글자는 버리고 한자에 미쳐 돌았고, 가림토가 남아있다고 해도 순 상것들이나 주먹구구식으로 쓰고 있었기에 가림토로 설명해봐야 선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니 할 수 없이 이두문 형식으로 썼고, 그래서 당시 선비들이나 세태에 피눈물을 흘리며 81자의 시첩을 써놓고 먼 후세에 가림토가 제대로 복원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그의 시 秋夜雨中에 나타난다.

秋夜雨中

秋風唯苦吟 가을바람에 오로지 괴로움을 읊어봐도

최치원은 성자다. 그런 이가 여자가 그리워 괴로워했을 리도 없고, 또 당시는 임금님이나 나라 때문에 걱정할 시기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가 천부경 예찬시 81자(속칭 천부경)를 쓰기 전에 우리말과 우리 글자 가림토를 다 없애고 오직 한자에 미쳐 도는 당시 선비들에게 아무리 '신지녹도문자 하느님의 천부경이 바로 하나, 둘, 셋, ... 열'이라는 것을 설명해 줘도 아는 사람이 없어 괴로워한 것으로 보인다.

世路少知音 세상에는 아느니 적네

그러니까 세상에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참으로 적다는 이야기이다. 만약 여자를 그리워했다면 世路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다.

窓外三更雨 창밖에는 밤늦도록 비만 오는데

역시 괴로운 마음을 가을비로 표현하고 있다.

燈前萬里心 등불 앞에는 머나먼 마음뿐

최치원의 천부경 81자, 그러니까 '진짜 천부경 신지녹도전자 16자가 하나, 둘, 셋, ... , 열'인 것을 알고, 이것을 우리말이 아닌 한자로는 도저히 풀 수 없도록 다시 이두문 형식의 시첩으로, 그것도 오묘하게 다시 짓기 전에(更復作帖) 만대 후의 알아줄 이를 기다리며 지은 시로 본다. 여기서도 만약 최치원이 여자가 그리워 이런 시를 썼다면 어느 누가 만세 후에 그의 심정을 동정해 줄 것인가? 따라서 만약 여자가 그리워 이런 시를 썼다면 萬里心과 같은 말이 들어갈 리가 없다.

5. 맺는 말

신지녹도전자 해독을 지면상 처삼촌 묘에 벌초 하듯 했다. 하지 못한 넷 부터 열 까지 해독은 앞에 소개한 글쓴이의 카페에 있으니 언제든지 들어와서 확인하시기 바란다.

미흡할지 모르지만 이상으로 신지녹도문 천부경의 글자가 하나, 둘, 셋,..., 열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게 설명하였다고 자부한다.

또 최치원의 81자에서 一, 二, 三은 天地人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치원이 신지녹도 전자를 해독해본 방법이나, 필자가 10가지 증거를 제시해가며 해독한 방법이 같다는 것도 이해하실 줄 믿는다.

따라서 '하나, 둘, 셋은 숫자이기 이전에 뜻이 들어있는 우리말'이었고, 그렇다면 그 뒤 '넷'부터 '열'까지도 숫자이기 이전에 어떤 뜻이 들어있는 우리말일 것이다. 즉, 그 뜻이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던 음양오행설이나 그 난해한 도표로 풀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말로 전해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뜻이 있는 우리말이라는 것은 너무도 뻔하며, 그래서 당시 말이 몇 마디 되지 않던 시절로 보면 이는 엄청 중요한 말이었을 것이니, '하나, 둘, 셋,..., 열이 하느님이 내리신 천부경'이라는 것이다.

당시 선비들은 자기 글자는 버리고 한자에 미쳐 돌았고, 가림토가 남아있다고 해도 손상것들이나 주먹구구식으로 쓰고 있으니 가림토로 설명해봐야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므로 최치원은 할 수 없이 우리말을 가장 가까이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두문 형식으로 썼고, 그래서 당시 선비들이나 세태에 피눈물을 흘리며 81자의 시첩을 써놓고 먼 후세에 가림토가 제대로 복원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위에 그의 시 秋夜雨中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치원의 81자는 진본 천부경 신지녹도 천부경을 해독하고 난 후 그에 대한 예찬문과 설명문이라고 한 근거가 된다.

그런데 세종에 의해 가림토가 되살아나 한글이 된 지금도 우리 학자들은 그 한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최치원의 81자를 한자 뜻대로만 풀려하다가 풀리지 않으니, 역시 중국에서 들어온 음양오행설로 독자는 물론 자신도 알고나 썼는지 모를 소리를 하여 결국 사이비 교주나 점쟁이들만 살찌우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앞으로 얼마를 더 가야 그러한 중국의 사대사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끝.